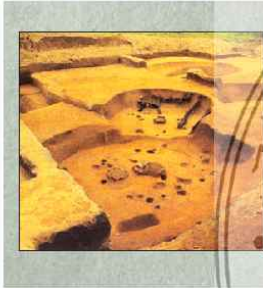


1. 다음 자료의 집터가 처음 만들어졌던 시대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2점]



사진과 같은 형태의 집터는 주로 강가나 해안가에서 발견된다. 보통 4~5명 정도의 가족이 살기에 알맞은 크기로 바닥 모양은 원형 또는 모서리가 둥근 방형이다. 중앙에는 취사나 난방용 화덕이, 출입문 옆에는 저장 구멍이 있다.

- ① 거친무늬 거울을 사용하였다.
- ②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들을 만들었다.
- ③ 거푸집을 활용하여 청동기를 제작하였다.
- ④ 금속제 무기를 사용하여 정복 활동을 벌였다.
- ⑤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다.

정답: ⑤

* 신석기 시대의 사회상

신석기 시대에는 도구가 발달하고 농경이 시작되자 정착생활을 하며 주거 생활도 개선되어 갔다. 집터는 대개 움집 자리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움집의 중앙에는 불씨를 보관하거나 취사와 난방을 위한 화덕이 위치하였다. 햇빛을 많이 받는 남쪽으로 출입문을 내었으며, 화덕이나 출입문 옆에는 저장 구멍을 만들어 식량이나 도구를 저장하였다. 집터의 규모는 4, 5명 정도의 한 가족이 살기에 알맞은 크기였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 살면서 뼈낚시, 그물 등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캐었고, 돌창, 돌화살 등으로 사냥을 하였다. 한편, 식물의 열매나 뿌리를 채취하여 먹는 생활을 하다가, 뒤에는 농사를 짓고 가축도 기르게 되었다. 농경 생활을 시작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돌괘기로 땅을 일구고 조, 피 등을 재배하여 돌낫, 뼈낫 등으로 추수를 하였으며, 돌갈판에 갈돌로 곡식을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또, 가락바퀴로 실을 뽑고, 뼈바늘로 옷을 지어 입기도 하였다.

①, ②, ④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는 반달 돌칼, 바퀴날 도끼, 흙자귀 등의 석기와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등의 청동기,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토기 등의 토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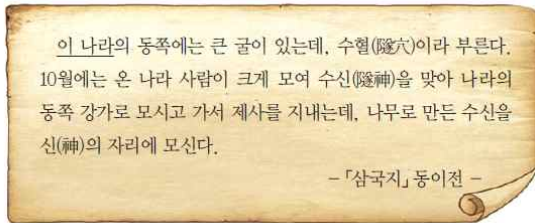
농업은 조, 보리, 콩, 수수 등 밭농사가 중심이었지만,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를 지었다. 이러한 농업의 생산력의 증가에 따라 잉여 생산물이 생기자, 힘이 강한 자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였다(사유재산).

생산물의 분배와 사유화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며 청동이나 철로 된 금속제 무기의 사용으로 정복 활동이 활발해졌다. 계급의 분화는 죽은 뒤에까지도 영향을 끼쳐 무덤의 크기와 켜묻거리의 내용에 반영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무덤이 고인돌이다.

③ 철기 시대에 이르러 청동기 문화도 더욱 발달하여 한반도 안에서 독자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청동기 시대 후반 이후, 비파형동검은 한국식 동검인 세형 동검으로, 거친무늬 거울은 잔무늬 거울로 그 형태가 변하여 갔다. 그리고 청동 제품을 제작하던 틀인 거푸집도 전국의 여러 유적에서 발견되고 있다.

2.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 ②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 ③ 제가 회의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 ④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 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8조법을 만들었다.

정답: ③

* 초기 국가 고구려

고구려도 부여와 마찬가지로 왕 아래에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으며, 각기 사자, 조의, 선인 등 관리를 거느렸다. 그리고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 회의를 통하여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또, 고구려에는 혼인을 정한 뒤 신부집 뒤꼍에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돌아가는 제도인 서옥제라는 풍속이 있었다.

그리고 건국 시조인 주몽과 그 어머니 유화 부인을 조상신으로 섬겨 제사를 지냈고, 10월에는 추수감사제인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아울러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회에 모여 함께 제사를 지냈다.

① 동예에서는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②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이들 가(加)는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부를 이루었다

④ 삼한에는 신지, 견지, 읍차, 부례 등의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그리고 신성지역으로 소도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천군은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하였다.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라도 도망을 하여 이 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사장의 존재에서 고대 신앙의 변화와 제정의 분리를 엿볼 수 있다.

⑤ 고조선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8조법이 있었는데, 오늘날 3개 조항이 전하고 있다.

-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
- 도둑질한 자는 그 집 종으로 삼는다. 스스로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당 50만 전을 내게 한다.

3. 밑줄 그은 ㉠의 상황 이후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연왕 노관이 한(漢)을 배반하여 흉노로 들어가자, 만(滿)도 망명하였다. 무리 천여 명을 모아 상투를 틀고 오랑캐 복장을 하고서 동쪽으로 도망하여 변경을 지나 패수를 건너 진(秦)의 옛 땅인 상하장에 살았다. ㉠점차 진번·조선인과 옛 연(燕)·제(齊)의 망명자를 복속시켜 거느리고 왕이 되었으며, 왕검에 도움을 청하였다.

- 「한서」 조선전 -

- <보 기>
- ㄱ. 연의 장수 진개의 공격을 받았다.
 - ㄴ. 준왕이 부왕(조조)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다.
 - ㄷ. 진국(辰國)과 한(漢)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하였다.
 - ㄹ. 조선상 역계경이 무리를 이끌고 진국(辰國)으로 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위만조선의 역사(b.c 194~108)

고조선은 bc 4세기 경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로 들어가고 연맹국가 단계를 넘어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게 되었다. 영토도 한반도 북부와 요서·요동을 아우르는 큰 나라로 성장하였다.

춘추 시대 당시 중국은 종주국인 주나라가 쇠퇴하고 각 지의 제후들이 왕을 칭하고 있었는데 연나라가 기원전 323년에 왕을 칭하자 고조선의 군주도 '왕'이라 칭했다고 한다. 기원전 3세기경에는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그 밑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도 두었다. 또, 요서 지방을 경계로 하여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강성하였다.

기원전 4세기 말에서 3세기 초, 연나라가 세력을 확대하면서 고조선은 연나라의 공격을 받아 광대한 영토를 상실하고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연나라의 장수 진개(秦開)의 침입으로 고조선은 2,000여 리

의 땅을 빼앗겼으며, 만번한(滿潘汗)을 경계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기원전 283년 경).

이로 인해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녕 지방에서 대동강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전국 시대 이후로 혼란에 휩싸이면서 유이민이 대거 고조선으로 넘어왔다. 고조선은 그들을 받아들여 서쪽 지역에 살게 하였다. 그 뒤, 진·한 교체기에 또 한 차례의 유이민 집단이 이주해 왔다. 그 중에서 위만은 1000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왔다. 위만은 준왕의 신임을 받아 서쪽 변경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그곳에 거주하는 이주민 세력을 통솔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점차 확대하여 나갔다. 그 후, 위만은 수도인 왕검성에 쳐들어가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되었다(기원전 194).

위만 왕조의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 철기의 사용은 농업과 무기 생산을 중심으로 한 수공업업을 더욱 융성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상업과 무역도 발달하였다.

이 무렵, 고조선은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기반으로 중앙 정치 조직을 갖춘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우세한 무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정복 사업을 전개하여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였다. 또,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동방의 예나 남방의 진이 직접 중국의 한과 교역하는 것을 막고, 중계 무역의 이득을 독점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군사적 발전을 기반으로 고조선은 중국의 한과 대립하였다.

이에 불안을 느낀 한의 무제는 수륙 양면으로 대규모 침략을 감행하였다. 고조선은 1차의 접전(패수)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이후 약 1 년에 걸쳐 한의 군대에 맞서 완강하게 대항하였다. 그러나 장기간의 전쟁으로 지배층의 내분이 일어나(주화파인 조선상 역계경의 진국으로의 이탈) 왕검성이 함락되어 멸망하였다(기원전 108).

4. (가), (나) 지역에 있었던 가야 소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가) - 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 ② (가) - 박, 석, 김의 3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 ③ (나) - 신라 진흥왕에 의해 정복되었다.
- ④ (나) -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 ⑤ (가), (나) - 이사금이라는 지배자 칭호를 사용하였다.

정답: ④

* 대가야와 금관가야

- 대규모 덧널무덤군인 김해 대성동 고분군은 금관가야의 지배층 무덤군이고,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의 지배층 무덤군이다.

- 낙동강 하류의 변한 지역에서는 철기 문화를 토대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 되었고 점진적인 사회 통합을 거쳐 2세기 이후 여러 정치 집단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3세기경 이들 사이의 통합이 더 발전하여 김해의 금관 가야가 중심이 되어 연맹 왕국으로 발전하였다. 이를 전기 가야 연맹이라고 부른다. 연맹의 맹주인 금관가야는 김수로에 의하여 건국 되었는데(42, 관련 '구지봉' 설화 삼국유사에 '가라국기'에 수록), 그 세력 범위는 낙동강 유역 일대에 걸쳤다.

가야의 소국들은 일찍부터 벼농사를 짓는 등 농경문화가 발달하였다. 또, 풍부한 철의 생산과 해상교통을 이용하여 낙랑과 왜의 규슈 지방을 연결하는 중계무역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4세기 초부터 백제(근초고왕)와 신라의 팽창(내물왕)에 밀려 전기 가야 연맹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4세기 말~5세기 초에는 신라를 후원하는 고구려군(광개토대왕)의 공격을 받고 거의 몰락하여 가야의 중심 세력이 해체되고, 가야 지역은 낙동강 서쪽 연안으로 축소되었다.

가야 연맹은 5세기 초에 크게 변하였다. 전기 가야 연맹이 해체되면서 김해,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남동부 지역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반면, 그 동안 낙후 지역이었던 북부 지역의 고령, 합천, 거창, 함양 등지의 세력은 자신의 영역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산간 지대에서 그간 수도작(水稻作) 농경과 야철술을 배경으로 실력을 양성하였고, 5세기 후반에 고령 지방의 대가야를 새로운 맹주로 하여 후기 가야 연맹을 이룩하였다.

6세기 초에 대가야는 백제, 신라와 대등하게 세력을 다투게 되었고,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이후, 신라와 백제의 다툼 속에서 특히 한강 유역을 상실한 백제의 진출로 후기 가야 연맹은 분열하여 김해의 금관가야가 신라에 정복당하였고(532, 법흥왕), 가야의 남부 지역은 신라와 백제에 의하여 분할 점령되었다. 결국, 대가야가 신라에 멸망하면서(562, 진흥왕) 가야 연맹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②, ⑤ 진한의 소국 중 하나로 시작한 신라(사로국)는 왕의 칭호가 중앙집권(마립간 이후)이 되기 전인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처음 거서간에서 차차웅으로 바뀌며 정치적 군장과 제사장의 기능이 분리되고 그 칭호가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어 이사금 시대는 동해안으로 들어온 석탈해 집단과 김알지의 후손이 등장하면서 박, 석, 김의 3성이 교대로 왕위를 차지하였다. 유력 집단의 우두머리는 이사금(왕)으로 추대되었고, 주요 집단은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5.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땅을 몰아내고 삼국을 통일하였다.
- ② 성골 출신으로 왕이 된 마지막 인물이다.
- ③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 ④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고 귀족들을 숙청하였다.
- ⑤ 집사부의 설치를 건의하고 친당 외교를 주도하였다.

정답: ⑤

* 무열왕 김춘추

나당동맹을 성사시킨 것을 통해 김춘추(602~661)임을 알 수 있다.

김춘추는 폐위된 진지왕의 손자로 진골로 격하된 배경 속에서 자라났다. 그러나 같은 진골이지만 멸망한 금관가야 출신의 김유신과 결탁하여 선덕여왕 말년의 상대등 비담과 염종의 반란을 진압하며 각각 정치, 외교와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였고(647), 마지막 성골 출신의 왕인 진덕여왕 사후에는 섭정왕 알천의 양보로 진골 출신으로 왕위에 오른 첫 왕이 되었다(654).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삼국통일을 위해 나당동맹을 결성시킨 것이다.

백제 의자왕의 공격으로 대야성이 함락되어 그의 딸과 사위가 죽게 되자(642) 고구려와 동맹하여 백제를 공격하고자 고구려에 갔으나, 죽령 이북의 옛 고구려 땅을 내놓으라는 실권자 연개소문에 의해 오히려 감금당하였다. 다행히 미리 준비해 간 자금으로 선도해를 매수하여 토끼의 간 비유를 통해 나온 후 국경지대에 미리 준비해 둔 친구 김유신을 통하여 탈출하였다.

결국 같은 민족의 동맹을 포기한 그는 이후 당에 건너가 나.당 동맹을 성사 시켰다(6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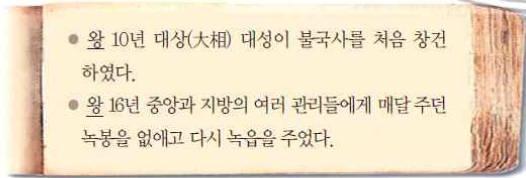
나당동맹군은 660년 백제를 멸망시켰으나 이듬해 무열왕이 죽고, 아들 문무왕(661~681)이 계승하여 고구려 멸망(668)과 나당전쟁 승리(676, 기벌포 전투 승리)를 통하여 삼국통일이 완성되었다.

② 진덕여왕(647~654) 때에 실권자 김춘추의 건의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집사부를 설치하였고(651), 집사부의 장관인 중시(시중)은 이후 신라 중대의 수상 역할을 하였다.

③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 때에 백제를 중심으로 외적의 침입으로 고통당하자 자장 율사의 건의(643)로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④ 신라 삼국 통일 직후의 왕인 신문왕(681~692)은 김흠돌의 모역 사건(681)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정치 세력을 다시 편성하며 왕권을 전제화 하였다.

6. 밑줄 그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보 기> —

- ㄱ.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여 관리를 채용하였다.
- ㄴ. 지방 행정 구역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꾸었다.
- ㄷ. 성덕 대왕 신종을 완성하여 봉덕사에 안치하였다.
- ㄹ. 국학을 태학감으로 변경하여 유교 교육을 강화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신라 경덕왕 대의 역사적 사실

불국사와 석굴암은 경덕왕 10년(751)에 김대성이 세웠다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다.

경덕왕(742~765)은 한화(漢化) 정책(중앙의 관청과 관직명 및 지방 군현명을 고유명에서 중국식으로 개칭)과 국학의 진흥 등을 통한 제도의 개편과 불국사·석굴암의 창건, 화엄경의 보급 등 불교의 장려를 통해 왕실의 권위와 신성함을 고양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지향적인 정책에 진골 귀족들이 반기를 들어, 타협안으로 신문왕 대(689)에 폐지되었던 녹읍이 부활되었다(757).

㉠ 원성왕(785~798) 때에는 국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 삼품과를 마련하였다(788).

㉡ 경덕왕이 부왕인 성덕왕을 기리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성덕대왕 신종(일명 에밀레종, 국보 29호)은 혜공왕(771) 때에 완성되어 봉덕사에 안치되었다. 이 종은 비천상 무늬와 구리와 주석이 환상적인 비율(82:13) 만들어져 신비한 종소리로 유명하다. 이는 당시 신라의 금속 주조 기술이 매우 뛰어났음을 보여 주고 있다.

㉢ 통일 신라에서는 신문왕 때 국학이라는 유학 교육 기관을 설립하였다(682). 성덕왕 때에는(719) 당으로부터 공자 ·10철 ·72제자의 화상을 얻어와서 국학에 안치하였고, 경덕왕 때에는 한화 정책에 따라 국학을 태학감으로 고쳤다가, 혜공왕 때 다시 국학으로 고쳐 불렀다.

7.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가) 소지 마립간 15년 3월에 백제 왕 모태가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였다. 왕은 이(별)찬 비지의 딸을 보냈다.
(나) 백제 왕 명농이 가야와 함께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 신주의 군주인 김무려가 주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교전하였는데, 비장인 삼년산군의 고간 도도가 급히 공격하여 백제 왕을 죽였다.

- ① 지증왕이 순장을 금지하였다.
- ② 진흥왕이 마운령에 순수비를 세웠다.
- ③ 무령왕이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하였다.
- ④ 신라가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⑤ 백제가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정답: ②

* 나제 혼인동맹(493)과 나제 동맹 결렬(관성 전투, 554) 사이의 역사적 사실

백제는 5세기 이후 고구려의 적극적인 남하 정책에 밀리다 개로왕 때에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 수도 한성을 함락당하고(475), 문주왕(475~477)이 금강 유역의 웅진(공주)으로 도읍을 옮기면서(475) 대외 팽창이 위축되었다. 더구나 중국과 일본 지역의 정세 변화에 따라 무역 활동도 침체되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세력이 국정을 주도하였다.

5세기 후반 동성왕(479~501) 때부터 백제는 다시 사회가 안정되고 국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동성왕은 신라 소지왕과 동맹을 강화하여(493, 결혼 동맹) 고구려에 대항하였고, 무령왕(501~523)은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백제 중흥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성왕(523~554)은 대외 진출이 쉬운 사비(부여)로 도읍을 옮기고(538),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면서 중흥을 꾀하였다. 성왕은 중앙 관

청과 지방 제도를 정비하고, 불교를 진흥하였으며, 중국의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함과 아울러 일본에 불교를 전하기도 하였다. 한편, 성왕은 고구려의 내정이 불안한 틈을 타서 신라와 연합하여 일시적으로 한강 유역을 부분적으로 수복하였지만 곧 신라에게 빼앗기고, 자신도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에서 전사하며 나제동맹도 결렬되었다(554).

① 신라 지증왕(500~514)은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그리고 수도와 지방의 행정 구역을 정리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이사부 장군을 시켜 우산국(울릉도)을 복속시켰다. 경제적으로는 우경을 실시하고, 시장 감독기구로 동시전을 설치하였고 사회적으로는 순장을 금지시켰다.

② 신라 진흥왕(540~576)은 백제 성왕과 연합하여 고구려의 지배 아래에 있던 한강 유역을 빼앗고 함경도 지역으로까지 진출하였으며, 남쪽으로는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여(562) 낙동강 서쪽을 장악하였다. 이러한 진흥왕의 정복 활동에 관한 사실은 단양 적성비(551)와 북한산비(555~568), 창녕비(561), 황초령비(568), 마운령비(568) 등의 4개의 순수비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④ 신라 법흥왕(514~540)은 병부의 설치, 율령의 반포, 공복의 제정 등을 통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또, 골품 제도를 정비하고 불교를 공인(527)하여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들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자주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532). 이로써 신라는 중앙 집권 국가 체제를 완비하였다.

8. (가)에 들어갈 불상으로 옳은 것은?

[1점]



정답: ②

*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삼국 시대에는 미륵보살 반가상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 중에서도 탑 모양의 관을 쓰고 있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국보 78호)과 삼산관(三山冠)을 쓰고 있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국보 83호)이 널리 알려져 있다. 삼국에서 전래된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을 바탕으로 일본의 세계적 자랑인 고류사 미륵보살 반가상(사유상)과 호류사 백제 관음상이 만들어졌다.

① 공주 의당 송정리 절터 출토 금동 관음보살 입상 (국보 247호): 7세기 백제 작품으로 중앙에 화불이 있는 삼면 보관을 쓴 정사각 형에 가까운 얼굴과 둥글고 아담한 단판연화 좌가 특징이다.

③ 광주 춘궁리 철불(보물 332호, 현재는 하남 하사창리 소재): 1m 대좌 위에 2.8m 높이의 대형 철불. 고려 초기의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는 대표적 철불이다.

④ 연가 7년명 금동 여래 입상(국보 119호):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하촌리에서 발견되었다. 연가 7년(延嘉七年)이라는 고구려 관련 연호가 새겨져 있는데, 고구려와 관련된 명기가 있는 불상이 남한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문화재이다. 정수리 위에는 큼직한 육계가 있으며, 소라 모양의 보발(寶髮)이 있는데, 이는 삼국시대의 불상에서는 보기 드문 예로 중국 북조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⑤ 이불명좌상: 발해 동경성 출토. 흙을 구워 만든 두 분의 부처(석가불, 다보불)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다.

9.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지방관의 근무 성적을 평가한 문서이다.
- ② 국가 물품을 생산하는 수공업자 명부이다.
- ③ 이름을 적는 곳이 비어 있는 관직 임명장이다.
- ④ 재산 상속과 분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⑤ 호구를 남녀별·연령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정답: ⑤

* 신라 민정문서

통일신라기에 촌주는 촌락마다 그 지역의 토지 크기·인구 수·소와 말의 수·특산물 등을 파악하는 문서(민정문서)를 3년마다 만들고, 조세·공물 부역 등을 거두어 국가에 바쳤다.

토지는 논·밭 촌주위답·내시형답 등 토지의 종류와 면적을 기록하고, 사람들은 인구·가호·노비의 수와 3년 동안의 사망·이동 등 변동 내용을 소와 말의 수, 뽕나무·잣나무·호도나무의 수까지 기록하였다. 특히 사람은 남녀별로 구분하고, 16세에서 60세의 남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호(가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상상호(上上戶)에서 하하호(下下戶)까지 9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일본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된 서원경(청주)의 사해점촌 촌락 자료가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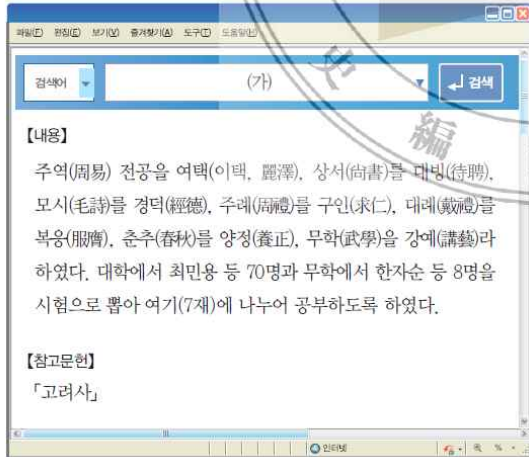
① 조선 시대에는 관찰사가 위하 수령의 근무성적을 평가(포폄:褒貶)하여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국왕에게 등제계문(等第啓聞)을 올렸다.

② 조선 시대에는 전문적인 기술자를 공장안(工匠案)에 등록시켜 서울과 지방의 각급 관청에 속하게 하고, 이들에게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작, 공급하게 하였다.

③ **공명첩(空名帖)**: 공명첩은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으로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돈이나 곡식을 받고 팔았던 명예직 임명장이다. 임진왜란 이후 심각해진 조선 정부는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대량으로 발급하였다. 공명첩을 받은 사람은 양반이 될 수 있어 그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④ **분재기(分財記)**: 조선 시대에 가옥, 토지, 노비 등의 유산을 나누어 상속한 내용을 작성한 문서이다. 울곡 이이의 7남매와 서모 권씨의 분재기가 유명하다.

10. (가)에 들어갈 교육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향음주례와 향사례를 주관하였다.
- ② 입학 자격은 생원, 진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 ③ 장학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현고를 두었다.
- ④ 전국의 부·목·군·현에 하나씩 설립되었다.
- ⑤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었다.

정답: ③

* 고려 국자감(國學)

고려 시대에는 관리 양성과 유학 교육을 위하여 많은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장려하였다. 중앙에는 국립 대학으로 국자감(國學)이 설치되었다. 국자감에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과 같은 유학부와 율학, 서학, 산학 등의 기술학부가 있었다. 유학부에는 문무관 7품 이상 관리의 자제가 입학하고, 기술학부에는 8품 이하 관리나 서민의 자제가 입학하였다.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가 설치되어 지방 관리와 서민 자제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고려 중기에는 최충의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가 융성하였다. 사학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이 과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국자감의 관학 교육은 위축되었다. 이에 정부는 관학 진흥을 위한 여러 시책을 추진하였다.

예종(1105~1122) 때에는 국자감을 재정비하여 무학재를 포함한 전문 강좌(7재)를 설치하고, 장학 재단(양현고)을 두어 관학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였고 궁중 안에 청연각, 보문각, 천장각, 임천각 등의 도서관 겸 학문 연구소를 설치하였다.

인종 때에는 경사(經史) 6학 제도를 마련하고, 향교 중심의 지방 교육을 강화하였다.

무신 정권기에는 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충렬왕 때에(1308년, 충선왕 재즉위년)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공자 사당인 문묘를 새로 건립하여 유교 교육의 진흥에 나섰다. 공민왕은 1362년 성균관을 순수한 유교 교육 기관으로 개편 하고 유교 교육을 강화하였다.

① 향촌의 선비나 유생들은 향교, 서원 등에 모여 학덕과 연륜이 높은 사람을 주빈으로 모시고, 그 밖의 유생을 빈으로 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의식인 향음주례(鄉飮酒禮)와 예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내세워 활을 쏘게 하는 향사례(鄉射禮)를 거행하였다.

②, ④ 조선 시대의 향교는 중등 교육 기관으로, 성균관처럼 성현에 대한 제사(대성전: 공자 제향)와 유생의 교육(명륜당)을 하였으며,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부·목·군·현에 각각 하나씩 설립되었다. 향교에는 그 규모와 지역에 따라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 또는 훈도를 파견하였다.

⑤ 최고 교육 기관인 성균관은 입학 자격은 생원, 진사(소과 합격자)를 원칙으로 하여 예비 관료 양성의 역할을 하였다.

11.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이 나라의 수도였던 상경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졌고, 남북을 가로지르는 주작대로가 있었다. 내성은 왕이 거주하는 궁성구와 관아가 있는 황성구로 나뉘었다. 외성 안팎에서는 절터, 집터 등이 발견되었다.

- ① 전성기에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 ② 궁전 터에서 온돌 장치가 발견되었다.
- ③ 고려 국왕을 표방하고 일본과 교류하였다.
- ④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 ⑤ 지방 세력의 통제를 위해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였다.

정답: ⑤

* 발해에 대하여

- 발해의 수도인 상경은 당나라 수도 장안성을 모방한 구조(주작대로)가 특징이고, 문왕 말기 동경 시기(785~794) 외에는 멸망 때까지 발해의 수도 역할을 하였다. 외성을 쌓고, 남북으로 넓은 주작 대로를 내고, 그 안에 궁궐과 사원을 세웠다. 궁궐 중에는 온돌 장치를 한 것도 발견되었다. 사찰은 높은 단 위에 금당을 짓고 그 좌우에 건물을 배치하였는데, 이 건물들을 회랑으로 연결하였다.

① 발해는 9세기 전반의 선왕(818~830) 때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고, 지방 제도도 정비하였다(5경 15부 62주). 이후 전성기를 맞은 발해를 중국인들은 해동성국이라 불렀다.

③ 발해는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또는 고려 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라든지 문화의 유사성으로 보아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였다(727년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이어받았다.”라든지, 759년 문왕이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스스로 ‘고(구)려 국왕’이라고 칭한 점이 나와 있다).

④ 발해의 중앙의 정치 조직은 3 성과 6 부를 근간으로 편성하였다.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고, 그 아래에 있는 좌사정이 충·인·의 3부를, 우사정이 지·예·신 3 부를 각각 나누어 관할하는 이원적인 통치 체제를 구성하였다. 당의 제도를 수용 하였지만, 그 명칭과 운영은 발해의 독자성을 유지하였다.

⑤ 신라는 삼국 통일 후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정을 파견하였고, 지방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들을 일정 기간 서울에 와서 거주하게 하는 상수리(上守吏)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12. 밑줄 그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왕 9년 처음 과거를 시행하였다. 한림학사 쌍기에게 명하여 진사를 뽑았다.
- 왕 11년 백관의 공복을 정하였다. 원윤 이상은 자색 옷, 중단정 이상은 붉은색 옷, 도랑정 이상은 비색 옷, 소주부 이상은 녹색 옷으로 하였다.

-「고려사」-

- ① 5도 양계의 지방 제도를 확립하였다.
- ② 별무반을 보내어 동북 9성을 개척하였다.
- ③ 흑창을 처음 설치하여 민생을 안정시켰다.
- ④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⑤ 2성 6부제를 토대로 중앙 통치 조직을 정비하였다.

정답: ④

* 고려 광종의 업적

고려 태조 왕건의 뒤를 이은 혜종(943~945)과 정종(945~949) 때에는 왕권이 불안정하여 왕자들과 외척들 사이에 왕위 계승 다툼이 일어났다(예: 왕규의 난).

이런 상황에서 즉위한 광종(949~975)은 노비 안검법(956)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어 후주 출신 귀화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 제도를 시행하여(958),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였으며, 지배층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960).

일련의 개혁을 통하여 자신감을 가지게 된 광종은 본격적으로 공신과 호족 세력을 제거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황제를 칭하고, 광덕, 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왕조 성립 초기의 공신과 호족 세력이 크게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될 수 있었다.

① 현종(1009~1031) 때에 경기(京畿)를 설치하고, 안찰사를 파견하기 시작하여 5도 양계제의 성립과 지방 제도가 정비되었다(1018). 즉 4도호부, 8목에 지방관을 두는 고려 군현제의 뼈대를 확립하였다.

② 고려 숙종(1095~1105) 때에 부족의 통일을 이룬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까지 남하하면서 고려군과 자주 충돌하자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별무반이라는 특수 부대를 편성한 다음(1104),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 내고, 예종 때에는 동북 지방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1107).

③ 궁예를 몰아내고 태봉의 많은 관료들의 지지 속에 왕위에 오른 뒤 태조(918~943)는 애민정책의 일환으로 호족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세율을 10분의 1로 낮추어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취민유도), 흑창(춘대추납)을 설치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⑤ 성종(981~997)은 중앙의 통치 기구를 개편하였다. 당의 3성(중서.문하.상서-성) 6부(이.병.호.형.예.공-부) 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약간 변형을 가하여 2성(내사문하성, 상서성) 6부(이.병.호.형.예.공-부)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 관제를 마련하였다.

13.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3점]

[역사 인물 소개]

이달의 인물, (가)



당에 유학하여 빈공과에 급제하였다. 황소의 난 때 토황소격문을 지어 문장가로서 이름을 떨쳤다. 저서로는 계원필경, 제왕연대력, 법장화상전 등이 있다.

- ① 일심 사상과 화쟁 사상을 주장하였다.
- ②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
- ③ 외교 문서를 전담하고 청방인문표를 작성하였다.
- ④ 국왕에게 조언하는 내용의 화왕계를 저술하였다.
- ⑤ 명망있는 승려의 전기를 기록한 해동고승전을 남겼다.

정답: ②

* 최치원에 대하여

최치원(857~?): 6두품 출신 유학자. 일찌기 당의 빈공과에 급제하고 관리 생활을 하며 '토황소격문' 등을 써서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다. 귀국하여 진성여왕 때에 개혁안 10여조를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그는 은둔 생활을 하면서 뛰어난 문장과 저술을 남겼다(진감선사 비문, 난랑비서문 등 유.불.도 혼합의 사상적 경향).

시문집 '계원필경'과 신라 역대 왕력을 정리한 역사서 '제왕연대력' 등이 유명하다.

① 불교의 대중화를 선도한 원효(617~686)는 불교 서적을 폭넓게 이해하고(대승기신론서, 금강삼매경론 저술),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들과 사상적 대립을 조화 시키고 분파 의식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화쟁 사상).

③ 통일 신라 초에 활약한 6두품 출신의 강수(?~692)는 외교 문서를 잘 지은 문장가로 유명하였다. 특히 당시 당나라에 갇혀있는 김인문을 석방해 줄 것을 청한 <청방인문표(請放仁問表)>는 당 고종을 감동시켜 김인문을 돌려보내게 하였다.

④ 6두품 출신의 설총은 유교 경전에 조예가 깊었고, 이두를 정리하여 한문 교육의 보급에 공헌하였고 신문왕에게 풍간(諷諫)의 뜻을 담은 화왕계(花王戒)를 지어 바쳤다.

⑤ 고려 후기 각훈이 쓴 해동고승전(1215)은 삼국 시대 이래의 승려 30여 명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현재 일부만 남아 있다.

14.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은/는 국청사의 주지로 있으면서 처음으로 천태교를 강의하였다. 이 천태교는 옛날에 이미 우리나라에 전해졌으나 점차 쇠퇴하였다. (가) 은/는 천태교를 다시 일으켜 진흥시킬 뜻을 가진 뒤로 일찍이 하루도 마음에서 잊은 적이 없었다. 인예 태후가 이를 듣고 기뻐하며 절을 짓기 시작하였고, 숙종이 이어서 마침내 불사를 끝냈다.

— <보 기> —

- ㄱ. 신편제종교장총록을 만들었다.
- ㄴ.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ㄷ.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요를 소개하였다.
- ㄹ. 수선사 결사를 통해 불교 개혁 운동을 전개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 의천에 대하여

11세기에 이미 종파적 분열상을 보인 고려 불교계에 문종의 왕자로서 승려가 된 의천은 교단 통합 운동을 펼쳤다. 그는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으며, 또 선종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청사를 창건하여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이를 뒷받침할 사상적 바탕으로 의천은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검수를 제창하였다.

또한 의천은 고려는 물론이고 송과 요의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편찬하였다. 이를 위하여 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을 만들고,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10여년에 걸쳐 신라인의 저술을 포함한 4700여 권의 전적을 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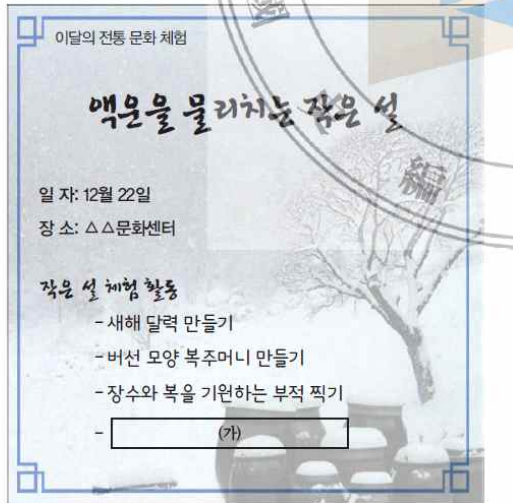
경제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윤관과 함께 숙종에게 적극적인 화폐 유통책을 건의하여 주전도감(1097)을 설치케 하고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 동전과 활구(은병)라는 은전이 만들어졌으나, 널리 유통되지 못하였다.

㉠ 고려 후기에는 이암이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요(1349)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는 중국 밭농사 위주의 화북 농법을 위주여서 논농사 위주의 우리 실정에 다소 맞지 않았다.

㉡ 고려 무신집권기 초기에 활동한 지눌(1158~1210)은 명리에 집착하는 당시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하며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고루 힘쓰자는 개혁 운동인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송광사에 중심을 둔 수선사 결사 운동은 개혁적인 승려들과 지방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5.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새알심 넣어 팔죽 만들기
- ② 창포 삶은 물에 머리 감기
- ③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달맞이하기
- ④ 부스럼을 예방하기 위한 부럼 깨기
- ⑤ 옷어른에게 세배를 하고 덕담 주고받기

정답: ①

* 세시풍속 동지(冬至)

동지는 24절기 가운데 하나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서 대설과 소한 사이이다. 양력 12월 22일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설'이라 해서 크게 축하하는 풍속이 있었다. 궁중에서는 이 날을 원단(설날)과 함께 으뜸이 되는 축일로 여겨 군신과 왕세자가 모여 '회례연'을 베풀었으며, 해마다 중국에 예물을 갖추어 '동지사'를 파견하였다. 또 지방에 있는 관원들은 국왕에게 글을 올려 축하하였다. 민가에서는 양색(陽色)인 붉은색이 음귀(陰鬼)를 내쫓는다 하여 새알심을 넣은 붉은 팔죽을 쑤어 먹었다.

② 단오(端午): 음력 5월 5일. 삼한 시대의 수릿날에 기원하여 한해 농사의 풍성을 기원한다 단오의 풍속 및 행사로는 창포물에 머리감기, 쑥과 익모초 뜯기,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단오장이라 하여 창포 뿌리를 잘라 비녀 삼아 머리에 꽂는 등의 풍속과 함께 그네뛰기, 활쏘기, 씨름 같은 민속놀이 등이 행해졌다.

③ 추석(秋夕): 음력 8월 15일. 일 8월은 한해 농사를 수확하고 마무리하는 풍성한 시기로 명절 중 으뜸이다. 일 년 동안 기른 곡식을 거둬들인 햅곡으로 빚은 송편과 각종 음식을 장만하여 차례상을 차려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산소에 성묘를 한다. 특히 한가윗날 보름밤에는 소원성취를 위한 달맞이하기를 하며, 고품 단장한 부녀자들이 수십 명씩 일정한 장소에 모여 손에 손을 잡고 원형으로 늘어서서, '강강술래'라는 후렴이 붙은 노래를 부르며 논다.

④ 정월 대보름(음력 1월 15일): 한해의 풍요와 건강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땅콩이나 잣, 호두, 밤 등 부럼을 자기 나이 수대로 깨물며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원하고, 일년 내내 기쁜 소식만 전해달라며 부녀자 애들 할 것 없이 귀밝이술(耳明酒)을 마신다.

농사가 잘되고 마을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마을 사람들이 모여 '다리 밟기', '지신(地神) 밟기', '차전놀이' 등을 벌이고, 한 해의 나쁜 액을 멀리 보내는 의미로 연줄을 끊어 하늘에 연을 날려 보낸다.

저녁에 대보름달이 솟아오르면 원추형의 나뭇더미를 불에 태우는 달집태우기, 햇불을 땅에 꽂고 합장하여 저마다 소원을 빌고 논이나 밭의 두렁에 불을 질러 잡귀와 해충을 쫓는 '쥐불놀이'를 한다.

⑤ 설날(元旦): 새해의 첫날인 음력 1월 1일. 세시풍속으로 차례, 세배, 설빔, 덕담, 문안비, 설 그림, 복조리 걸기, 야광 귀 쫓기, 청 참, 윷놀이, 널뛰기, 머리카락 태우기 등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다.

16. 다음 두 사건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2점]

- 병진년 동북면병마사 간의대부 □□□이/가 동계에서 군사를 일으켜 전(前) 왕을 복위시키고자 하였다. 동북면 지병마사 한언국이 군사를 일으켜 이에 호응하여 장순석 등으로 하여금 거제에 이르러 전 왕을 받들어 계림에서 거처하게 하였다.
- ○○○이/가 동계·북계의 여러 성에 격문을 돌려 말하길, “소문에 따르면 개경의 중방에서 ‘북계의 여러 성들을 토벌해야 한다.’며 군사를 동원했다고 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죽을 수 있겠는가? 각자 군사와 말을 소집해 빨리 서경으로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절령 이북의 40여 성들이 호응했다.

- ① 이자겸이 주도하였다.
 ② 서경 천도를 주장하였다.
 ③ 무신 정권을 타도하려고 하였다.
 ④ 고구려 부흥을 기치로 내세웠다.
 ⑤ 강조의 정변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정답: ③

* 무신 정권 타도 운동(김보당, 조위총의 난)

무신정변(1170)이 발발하여 의종이 폐위되고 무신들에 의해 즉위한 명종은 실권없이 지내자, 문신 출신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은 정중부, 이의방 정권을 타도하고 폐위된 의종을 복위시키고자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1173).

서경 유수 조위총 역시 무신정변 이후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정중부·이의방을 타도하여 나라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거병했으나 역시 실패하였다(1174~1176, 1179년 재봉기).

이 거병은 비록 조위총이 북계 여러 성 주민의 개경에 대한 불만 분위기에 편승하여 주도한 것이었지만 그 중심 세력은 서북계 40여 성의 도령에 이끌린 서북 농민들이었다. 따라서 이 난은 서북 농민들의 무인 정권에

대한 항거의 성격이 강했다

① 고려 전기 최대의 문벌귀족인 경원 이씨 이자겸은 딸들을 예종과 인종의 왕비로 두어 최고의 권력자로 행세하였다. 이자겸의 권력은 국왕의 자리까지 넘볼 정도였다. 이에, 왕위 유지에 위협을 느낀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도리어 이자겸의 반격을 받아 궁궐이 불타는 등 위기에 처했다. 이를 이자겸의 난이라 한다(1126). 그러나 얼마 후 인종은 이자겸의 부하인 척준경을 시켜 이자겸을 제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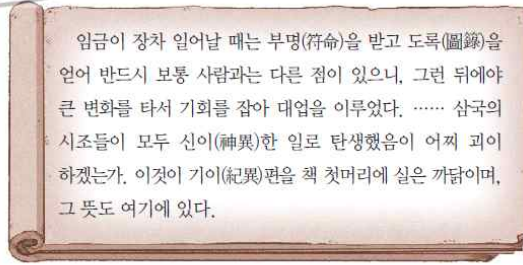
② 고려 태조 이래의 복진정책을 계승하여 서경으로 천도할 것과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며 (칭제건원) 금국 정벌을 주장하며 일어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1135)은, 문벌 귀족 사회 내부의 분열과 지역 세력 간의 대립, 풍수지리설이 결부된 자주적 전통(불교+도참사상) 사상(서경파)과 사대적 유교 정치 사상(개경파)의 충돌, 고구려 계승 이념(서경파)과 신라 계승 이념(개경파)의 충돌 등이 얹혀 일어난 것으로, 귀족 사회 내부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었다.

④ 고구려 멸망(668) 이후 보장왕의 서자 안승을 받든 검모잠과 고연무 등은 고구려의 유민을 모아 한성(황해도 재령)과 오골성을 근거지로 부흥 운동을 전개 하였다. 이들은 한때 평양성을 탈환하기도 하고, 후에는 신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세를 떨치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⑤ 거란은 목종을 폐하고 현종을 즉위시킨 강조의 정변(1009)을 트집잡아 다시 두 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략하였다. 거란의 2차 침입(1010) 때에는 개경이 함락되기도 하였으나, 양규가 이끄는 고려군이 강화를 맺고 물러가는 거란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17.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왕명을 받아 연대순으로 편찬하였다.
- ② 불교 중심의 고대 민간 설화를 수록하였다.
- ③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역사서이다.
- ④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 ⑤ 고구려 건국 영웅을 서사시 형태로 서술하였다.

정답: ②

* 삼국유사

원의 간섭기인 충렬왕 때에 일연이 경북 군위 인각사에서 쓴 '삼국유사'(1281)는 고조선에서 후삼국 시대의 역사를 불교사를 중심으로 신이적(神異的) 사실을 많이 담고 있어 왕력과 함께 기이(奇異)편을 책의 권두에 두며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다. 특히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①, ③ 고려 중기 인종 때에 김부식 등이 왕명을 받아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1145).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정사(正史) 역사서로서, 고려 초에 쓰여진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고구려 계승 의식을 뚜렷하게 표방하였으나, 중기에 이르러 신라 계승 의식이 강화되었는데, 삼국사기에는 신라 계승 의식이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④ 조선 초기에 우리나라의 전체 역사를 편찬하려는 노력도 계속되어 성종 때에 동국통감(1485)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편년체 통사로서, 서거정 등이 편찬하였다.

⑤ 고려 후기에는 민족적 자주 의식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 하려는 경향이 대두하였다. 이는 무신정변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몽골 침략의 위기를 겪은 후에 나타난 변화였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역사인 이규보의 동명왕편(1193)은 고구려 건국의 영웅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종의 영웅 서사시로서, 고구려의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18.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신문

제○○호 ○○○○년 ○○월 ○○일

고려 성터의 발굴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여 봉기한 [가]이/가 강화도를 떠나 새로운 근거지로 삼았던 성터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고려 시대 성문의 형식 및 축조 과정과 연대, 그리고 시설물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대근(大近), 해(海) 등이 새겨진 명문 기와는 신안 압해도 건물지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하여 세간의 주목을 끈다. 이를 통해 압해도 주민들이 동원됐을 뿐만 아니라 김통정의 지휘 하에 이 성에 주둔한 [가]에 의해 축성됐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 <보 기> —

ㄱ. 여·몽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ㄴ. 승려 출신으로 구성된 향마군이 있었다.
 ㄷ.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항쟁하였다.
 ㄹ. 경대승이 신변 보호를 위해 처음으로 만든 사병 조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삼별초의 항쟁(1270~1273)

삼별초는 1219년 최충헌의 정권을 계승한 최우가 도둑 방지 등 치안유지를 위해 설치한 야별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별초란 ‘용사들로 조직된 선발군’이라는 뜻이다. 그 뒤 야별초에 소속한 군대가 증가하자 이를 좌별초·우별초로 나누고, 몽골 병사와 싸우다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한 병사들로 신의군을 조직, 이를 좌·우별초와 합하여 삼별초의 조직을 만들었다.

삼별초는 경찰, 군사 기능을 담당한 반관반민의 준군사집단인 동시에 최씨 무신정권의 전위로서 다분히 사병적인 요소도 있었다. 그러나 항몽전에서는 그 선두에서 유격전술로 몽골병을 괴롭혔다.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몽골과 강화가 성립되어 고려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1270), 승화후 온(溫)을 내세워 배중손의 지휘 하에 진도에서 용장성을 중심으로 궁궐과 관아를 쌓고 항쟁하였다. 그 세력 범위는 한때 진도에서 제주도를 포함한 전라, 경상남도의 남해안 일대에 이르렀다. 또한 진도를 거점으로 한 삼별초 정부의 초기 활동은 매우 왕성하여 고려의 정통정부임을 스스로 자처하였고 황제를 칭하였다. 또한 삼별초 정부는 독자적으로 일본에 사신을 파견(1271), 일본과의 연결을 통한 몽고세력의 차단을 의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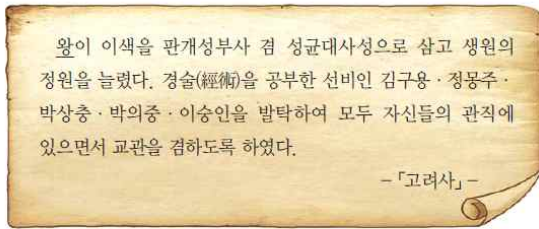
그러나 결국은 400여척이 넘는 배를 이끌고 김방경, 홍다구가 지휘하는 여몽 연합군에 의해 패퇴하였다. 배중손이 진도 전투에서 전사하고 승화후 온이 생포되어 죽자 김통정의 삼별초를 지휘하며 제주도로 옮겨가며 개경정부 및 몽골과 대항하여 항쟁하다 결국 진압되었다(1270~1273).

㉠ 12세기 초 부족의 통일을 이룬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까지 남하하면서 고려군과 자주 충돌하였다. 고려는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신기(기병).신보(보병).향마(승병)군으로 구성된 별무반(1104)을 편성한 다음,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 내고 동북 지방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1107).

㉡ 최씨 무신정권의 사병으로는 도방과 삼별초가 있다. 경대승 정권 때(1179)에 신변 보호를 위해 처음 설치된 도방은 삼별초와 함께 최씨 정권을 유지하는 핵심 군사적 기반이었고, 삼별초가 조직되자, 공적 임무는 삼별초가 맡게 되고, 도방은 오직 사적 임무인 숙위만을 맡게 되었다.

19.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8점]



- ① 사립원을 설치하여 개혁을 실시하였다.
- ② 과전법을 공포하여 전제를 개혁하였다.
- ③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재조대장경을 제작하였다.
- ④ 정계와 계백료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 ⑤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정답: ⑤

* 공민왕의 업적

원·명 교체기를 이용하여 개혁을 추진한 공민왕(1351~1374)의 개혁은 대외적으로 반원 자주를 실현하고, 대내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은 기철로 대표되던 친원 세력을 숙청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였다(1356). 이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원의 간섭으로 바뀌었던 관제를 복구하였으며, 이연종의 건의를 받아들여 변발, 호복의 몽골 풍속을 금지하였다(1352). 또, 무력으로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으며(1356), 더 나아가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하여 지용수와 이성계를 시켜 요동 지방을 공략하였다(1370).

공민왕은 왕권을 제약하고 신진 사대부의 등장을 억제하고 있던 정방을 폐지하였다(1352). 또한 이색을 책임자로 하여 국자감을 계승한 성균관을 순수한 유교 교육 기관

으로 개편 하고(1362) 유교 교육을 강화하여 박상충, 정몽주, 정도전, 이승인 등의 신진사대부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

아울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1366),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켰다. 이를 통하여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공민왕 때의 개혁은 권문세족의 강력한 반발로 신돈이 제거되고(1371), 개혁 추진의 핵심인 공민왕까지 시해되면서 중단되고 말았다.

① 1298년에 충렬왕으로부터 선위를 받은 충선왕은 정방을 폐지하고 사립원(詞林院)을 설치하여 개혁정치를 추진하였으나, 조비 무고 사건으로 동년 원에 의해 소환 폐위되며 무산되었다.

② 위화도 회군 이후 우왕, 창왕을 폐위시키고 허수아비 공양왕을 내세운 정도전, 조준 등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은 전제 개혁을 시행하여(과전법, 1391) 그들의 경제기반을 마련하였다.

③ 몽고의 침입 당시 고려의 최우 정권은 민심을 모으고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강화도에서 팔만대장경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고종 23년(1236)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제작하기 시작하여 고종 38년(1251)에 완성하였다.

④ 고려 태조 왕건(918~943)은 정계와 계백료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고,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으로 훈요 10조를 남겼다.

20. 다음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책의 원래 이름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인데, 직지심체요절 또는 직지라고도 한다. 승려 백운 화상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해설한 책이다. 직지심체는 사람의 마음을 직관하여 부처의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의미이다.

- ① 주자소를 설치하여 인쇄하였다.
- ② 신미양요 때 약탈된 문화 유산이다.
- ③ 불국사 3층 석탑 안에서 발견되었다.
- ④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간행되었다.
- ⑤ 세계 기록 유산으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정답: ④

* 직지심체요절

1372년 경한(백운 화상)이 부처와 조사(祖師)의 계송(偈頌)·법어(法語) 등에서 선(禪)의 요체를 깨닫는 데 필요한 내용을 뽑아 엮은 책을, 경한의 입적 후인 1377년 청주목의 교외에 있던 흥덕사에서 금속활자인 주자로 찍어낸 것이 초간본(初刊本)이 된다. 상하 2권 중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 하권 1책(첫 장은 결락)뿐이며,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직지가 프랑스로 넘어간 것은 대한제국 말기이다. 당시 주한 프랑스 공사였던 콜랭 드 플랑시(재임 1890년~1903년)가 직지를 수집해 프랑스로 가져갔다. 모리스 쿠랑(1865~1935)이 1901년에 저술한 '조선서지'의 보유판에 게재된 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 1900년께에는 이미 수집된 것으로 추측된다. 플랑시는 우리나라에서 수집해 간 대부분 고서를 모교인 동양어학교에 기증했는데 직지는 앙리 베베르(1854~1943)가 180프랑에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다가 1950년께 유언에 따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되었다(현재).

그 후 직지의 존재는 잊혀졌다가, 재발 서지학자로 프랑스국립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박병선씨에 의해 발견되어 20여 년이 지난 1972년 5월 27일, 파리에서 열린 '책의 역사' 전시를 통해 그 존재가 다시 알려지게 되었다. 곧바로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으로 공인받았고 2001년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① 고려 시대에 발명되어 사용된 금속 활자는 조선 초기에 이르러 더욱 개량되었다. 태종 때에는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로 계미자를 주조하였다(1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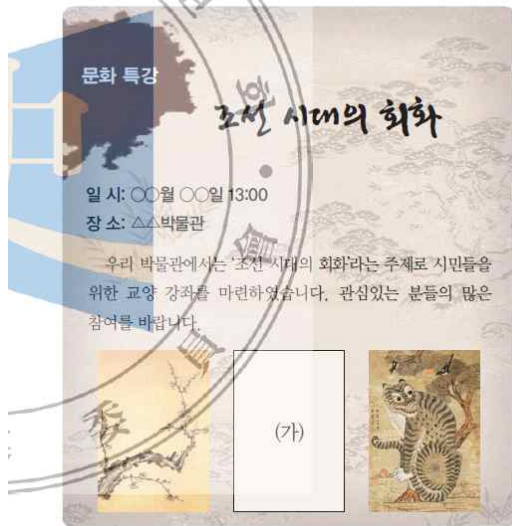
③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8세기 초에 만들어진 두루마리 불경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목판 인쇄물이다.

⑤ 몽고의 침입 당시 고려의 최씨 정권은 민심을 모으고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강화도에서 고종 23년(1236)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재조대장경을 제작하기 시작하여 고종 38년(1251)에 완성하였다. 부처의 가르침을 8만여 장의 나무판에 새겨 넣어서 팔만대장경판이라 한다. 팔만대장경은 방대한 내용을 담았으면서도 잘못된 글자나 빠진 글자가 거의 없는 제작의 정밀성과 글씨의 아름다움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장경으로 꼽힌다.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은 우수한 기록 보존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은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지정되었다.

21. (가)에 들어갈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정답: ④

* 조선 시대의 회화

조선 후기 그림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새 경향은 진경산수화(정선)와 풍속화(김홍도, 신윤복)의 유행이었다. 진경산수화는 우리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려 회화의 토착화를 이룩하였으며, 풍속화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정경과 일상적인 모습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어 회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민중의 미적 감각을 잘 나타낸 민화도 유행하였다. 해, 달, 나무, 꽃, 동물, 물고기 등을 소재로 삼아 소원(권선징악, 풍요)을 기원하고 생활공간을 장식하였다. 이런 민화에는 소박한 우리 정서가 짙게 배어 있다.

① 씨름도: 서민적 풍속화가 김홍도(1745~?)의 대표적 작품

②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 조선 후기 문인화가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작품

③ 겸재 정선, 현재 심사정과 함께 조선의 3재(才) 화가 중 하나인 공재 윤두서(1668~1715)의 자화상(국보 240호). 우리나라 최고의 걸작 자화상으로 꼽힌다.

④ 현대 서양화가 이중섭(1916~1956)의 소(연필 소묘, 1941년 작)

⑤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가 정선(1676~1759)의 인왕제색도(1751)

22. (가)~(다) 관리가 속한 관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조선 시대 세 분의 관리를 모시고 하시는 일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집현전을 계승하여 국왕의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가) 부제학

정치를 논하여 바르게 이끌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합니다.

(나) 집의

국왕의 정치에 대한 간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 사간

① (가) - 국왕 직속의 사법 기구이다.
 ② (나) - 부속 관청으로 교서관을 두었다.
 ③ (다) - 장관으로 종2품 대사헌이 있었다.
 ④ (가), (나) - 고려의 삼사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였다.
 ⑤ (나), (다) - 5품 이하 관리에 대해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정답: ⑤

* 조선 시대의 언론 삼사

조선 시대의 언론 기관인 **사헌부**(주로 백관 감찰, 기강.풍속 정립, 사법권, 경연, 서경.간쟁.봉박) **사간원**(주로 국왕에 대한 간언, 신료에 대한 탄핵, 경연, 서경.간쟁.봉박), **홍문관**(집현전을 계승, 주로 왕의 자문 및 경연강의, 경서.사적의 관리, 문한(文翰)의 처리)의 3사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정사를 비판하며, 문필 활동을 하면서 언론 기능을 담당하였다.

3사의 장관

홍문관 - 대제학(정2품)

사헌부 - 대사헌(종2품)

사간원 - 대사간(정3품)

특히 사헌부와 사간원은 양사라 하여 대간을 이루고 서경.간쟁.봉박을 담당하였는데, 서경이란 5품 이하 관료에 대한 임면과 법령 개폐시 동의를 얻는 절차이고, 간쟁은 왕께 충언(간언)을 하는 것이고, 봉박은 국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절대 권력을 비판하는 기능으로 인정되었다.

즉, 3사의 언론은 고관은 물론이고 왕이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고, 이를 위한 여러 규정이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같은 3사의 기능 강화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 시대 정치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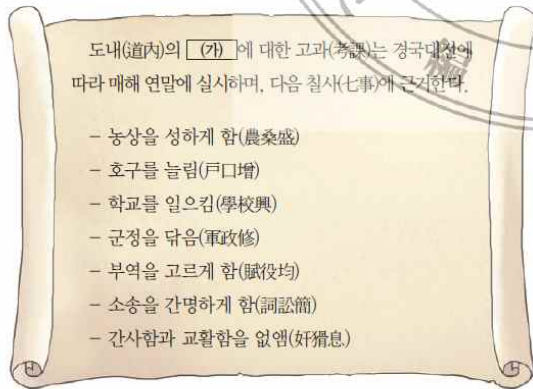
① 국왕 직속의 사법기구는 의금부로 국가의 큰 죄인을 다스렸다.

② 경적(經籍)을 담당하는 교서관은 홍문관, 예문관, 성균관, 춘추관, 승문원 등과 함께 예조의 속아문이다.

④ 고려의 삼사는 조선의 언론 삼사와는 전혀 다르고, 중국 송과도 달라 단순히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만 맡았다.

23.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감사, 도백으로도 불렸다.
- ② 대대로 직역을 세습하였다.
- ③ 유향소의 좌수로 향리를 규찰하였다.
- ④ 임기는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하고 360일이었다.
- ⑤ 국왕의 대리인으로 행정·사법·군사권을 행사하였다.

정답: ⑤

* 조선의 지방관 수령

조선은 전국을 8 도로 나누고, 고을의 크기
에 따라(부.목.군.현) 지방관의 등급을 조정하
고(부윤, 부사, 목사, 군수, 현령, 현감), 작
은 군현을 통합하여 전국에 약 330여 개의
군현을 두었다.

나아가, 전국의 주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
기 위하여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수령은 왕의 대리인으로, 지방의 행정·사법·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수령 7사라 하여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주요 7가지 업무가 있
는데, 성농상(농업 진흥), 간활식(치안 확보),
증호구(인구 증가), 균부역(부역을 균등히),
간사송(지역민 재판), 흥학교(학교 진흥), 수
군정(군대 정비)이 있다.

이렇게 수령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향리는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 하는 세습적인 아
전으로 격하시켰다.

한편, 수령을 지휘, 감독하고 백성의 생활을
살피기 위하여 전국 8도에 관찰사(감사, 도
백)를 파견하였고, 수시로 암행어사를 지방
에 보내기도 하였다.

수령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5년(1800일)이고,
상피제로 인하여 출신지에 임용되지 못했다.

관찰사 임기는 함경도, 평안도를 제외하고
초기에 1년(360일)이다가 2년으로 늘어났다.

③ 조선 시대에 향촌 사회에서 지주로 농민
을 지배하던 사족(士族)들이 향촌 자치를 위
하여 설치한 기구인 유향소(->향청)는 수령
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향촌 사회의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기구로서 좌수, 별감
등이 회의를 주도하였다.

24.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개척한 국왕의 대외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박위를 파견하여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 ② 세간선에 관한 계해약조를 체결하였다.
- ③ 북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어영청을 확대하였다.
- ④ 박권을 보내 국경을 확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 ⑤ 여진과의 무역을 위해 경원에 무역소를 처음 설치하였다.

정답: ②

* 4군 6진을 개척한 세종 대의 대외정책

조선은 초기에 여진에 대하여 회유와 토벌의 양면 정책을 취하였다. 조선은 여진족의 귀순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직을 주거나 정착을 위한 토지와 주택을 주어 우리 주민으로 동화시켰다. 또, 사절의 왕래를 통한 무역을 허용하였고, 태종 대인 1406년에는 국경 지방인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두고 국경 무역을 허락하였다

세종(1418~1450) 때에 여진족이 살던 북방 지역을 개척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오늘날의 국경선을 확보하였다. 최윤덕 장군을 시켜 압록강 상류 지역을 확보하여 북서 4군을 설치하고(1433), 김종서 장군을 시켜 두만강 하류 일대까지 확보하여 동북 6진을 설치하였다(1449).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계속된 왜구의 침략으로 폐해가 심해지자 조선은 수군을 강화하고, 성능이 뛰어난 전함을 대량으로 건조하였다. 특히, 화약 무기를 개발하여 선박

에 장착하는 등 왜구의 격퇴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침략과 약탈이 어려워진 왜구들이 평화적인 무역 관계를 요구해 오자, 조선은 일부 항구를 개방하여 제한된 무역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왜구의 약탈이 계속되자, 이를 강력히 응징하기 위하여 세종은 이종무를 시켜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토벌하였다(1419). 아울러 왜구의 요구를 받아들여 남해안의 부산포, 제포(진해), 염포(울산) 등 3포를 개방(1426)하여 무역을 허용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허락하였다(1443, 계해약조: 세간선 50척, 세사미 200석 이내).

① 왜구의 본거지인 쓰시마섬(대마도) 토벌은 고려 말 창왕 때(1389)에 박위의 토벌과, 조선 초 세종 때(1419)에 상왕 태종의 주도하에 이종무의 토벌이 있었다.

③ 효종(1649~1659) 때에 병자호란의 치욕을 갚고 명의 은혜를 갚기 위해 양성하였던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 군대를 양성하였다.

④ 청은 1644년 중국 대륙을 차지한 후에도 그들의 본거지였던 만주 지방에 관심을 기울여 이 지역을 성역화하였다(封禁).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의 일부가 두만강을 건너 인삼을 캐거나 사냥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청과 국경 분쟁이 일어났다. 이에, 숙종 때에는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조선: 박권, 청: 목극동)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하여 정계비를 세웠다(1712). 이 정계비에서 양국 간의 국경은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고 하였다(烏喇總管穆克登奉 旨查邊至此審視西爲鴨綠江 東爲土門故於分水嶺上勒 石爲記 康熙 五十一年五月五日)

25. 다음 자료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정축년 10월 어느 날 나는 밀성에서 경산으로 가다가 답계역에서 자는데, 꿈에 신인(神人)이 현결찬 모습으로 나타나 말하길 “나는 초나라 회왕의 손자 심(의제)인데, 서초 패왕(항우)에게 살해되어 침강에 던져졌다.” 하고는 갑자기 사라졌다. 꿈에서 깨어나 놀라 생각하기를 ‘역사를 상고해 보아도 강에 던져졌다는 말은 없는데, 정녕 항우가 사람을 시켜서 심을 몰래 죽이고 그 시체를 물에 던진 것인가? 이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마침내 글을 지어 조문하였다.

- ① 김일손 등의 신진 사류가 화를 입었다.
- ②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게 되었다.
- ③ 중전이 폐위되고 남인이 집권하게 되었다.
- ④ 서인이 한국을 통해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다.
- ⑤ 현량과를 통해 등용된 신진 세력들이 희생되었다.

정답: ①

* 조의제문과 무오사화(1498)

무오사화(1498): 성종 대 영남 사림의 대표적 인물인 김종직이 생전에 지은 조의제문(항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초나라 의제를 추모하는 글. 마치 세조에 의해 죽은 단조를 빛대는 듯이 보임)이, 그가 죽은 후인 1498년(연산군 4년)에 제자인 김일손이 사초로 실록에 작성한 것을 유자광, 이극돈의 훈구 세력이 문제 삼아 김종직(부관참시), 김일손 등의 사림파를 처형한 사건이다. 그 결과 향사례, 향음주례를 주관하던 사림들의 기구가 헝파되었고, 김종직 문인으로 구성된 영남사림이 대부분이 몰락하였다.

② **기축옥사(1589, 정여립 모반 사건 관련 동인에 대한 옥사)의 주역 서인 정철(세자건저 문제로 몰락)의 처벌을 놓고서 1591년에 강경론인 북인(조식 계열)과 온건론인 남인(이항 계열)으로 분화되었다.**

③ **기사환국(1689):** 남인이 원자(장희빈 소생)를 정함에서 반대한 서인을 몰아내고 집권하였으며, 송시열 등 사사되었으며 중전인 인현왕후가 폐위되었다.

④ **경신환국(1680):** 유약(기름먹인 장막) 사건을 빌미로(실제는 도체찰사 문제) 서인이 남인(허적, 윤휴 등)을 몰아내고 집권. 남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 서인의 노론(강경론), 소론(온건론) 분화

갑술환국(1694): 인현왕후(서인 옹호) 복위와 장희빈 강등 관련, 남인이 쫓기고 서인(노론과 소론) 재집권

⑤ **기묘사화(1519):** 중종 때에 현량과로 진출한 진출한 조광조를 필두로 하는 신진세력들의 급진개혁(훈구파 위헌삭제, 현량과 실시 등)과 관련하여, 남곤, 심정 등의 훈구 세력이 ‘주초위왕’ 모략으로 조광조, 김정 등의 사림이 처형된 사건. 사림에 의해 추진된 소학 실천운동이 향약과 함께 한 때 폐지되었다.

26. 밑줄 그은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보 기> —

ㄱ. 남인과 서인 간에 발생한 전례 문제이다.
 ㄴ. 복인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배경이 되었다.
 ㄷ. 송시열이 주자가례에 따라 기년설을 주장하였다.
 ㄹ. 외척 세력인 대운과 소운 간의 대립으로 일어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예송 논쟁 (기해 예송)

현종 때에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효종과 효종비의 국상(國喪)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예송(기해예송-1659, 갑인예송-1674)이 발생하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었다.

이 때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慈宣大院君)의 복상문제를 놓고 신권을 강조하는 서인(송시열, 송준길)은 주자가례에 따라 효종이 적장자가 아님을 들어 왕과 사대부에게 동일한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해예송 때에는 1년설(기년설)을 갑인예송 때에는 9개월(대공)설을 주장하였다.

반면 왕권을 강조하는 남인(허목, 허적, 윤휴, 윤선도)은 6경 고학(古學)에 기반을 두어 왕에게는 일반 사대부와 다른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해예송 때에는 3년설을 1년설(갑인)을 각각 주장하여 서인과 대립하였다.

기해 예송에서는 서인이 승리하였지만, 갑인 예송에서는 남인이 승리하였다.

㉠ 임진왜란이 끝난 뒤 의병을 주도한 복인이 집권하여 광해군 때까지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서인과 남인 등을 배제한 채 정권을 독점하려 하였고, 결국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에 의해 몰락하였다(1623).

㉡ **을사사화**(1545): 명종 때에 왕위 계승을 놓고 외척인 소운(윤원형)과 대운(윤임)간의 권력 싸움과, 양편 모두에 사림이 가담하여 큰 피해를 받은 사건. 윤임과 정희등, 박광우 등의 사림이 처형당하였다. 이후 낙향한 사림은 학문교육에 몰두하여 서원과 성리학의 발달하였다.

27.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제왕학으로서 성학집요를 저술하였다.
- ② 소격서 폐지와 소학의 보급을 주장하였다.
- ③ 기축봉사를 올려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웠다.
- ④ 성학십도에서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하였다.
- ⑤ 조선정국전을 저술하여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하였다.

정답: ②

* 기묘 사람의 대표적 인물 조광조 (1482~1519)

중종 반정(1506) 후 중종은 사람을 다시 등용하여 유교 정치를 일으키려 하였다. 당시 명망이 높았던 정암 조광조(김종직-김광필-조광조로 사람의 학통이 이어짐)가 중용되면서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통하여 사람이 대거 등용되었다.

이들은 3사의 연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 표방하면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신들의 반발로 말미암아 조광조를 비롯한 사람 세력은 대부분 제거되었다(기묘사화: 1519).

조광조를 비롯한 당시의 사람은 경연의 강화, 언론 활동의 활성화, 위훈(僞勳) 삭제, 소격서의 폐지, 향약의 시행, 소학의 보급, 방납의 폐단 시정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①, ④ 조선 중기 대표적 성리학자인 이황(1501~1570)과 이이(1536~1584)의 사상은 군주의 성학에 대한 입자에도 차이가 있어, 이황의 성학십도에서는 군주 스스로가 성학을 따를 것을 제시한 반면, 이이의 성학집요에서는 현명한 신하가 성학을 군주에게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송시열(1607~1689):** 서인(노론)의 산림 지도자로서 효종 즉위 직후 기축봉사(1649)를 올려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우며 북벌 운동을 주도하였고, 현종 때의 예송 논쟁에서는 신권을 강조하는 상복설(1년, 9개월)을 주장하였다. 남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인 노론의 영수였다.

⑤ 조선 창건의 1등 공신인 급진파 사대부 정도전(1342~1398)은 유교적 통치 규범을 성문화하기 위한 법전의 편찬에 힘써 조선경국전(1394)과 경제문감(1395)을 편찬하였고, 민본적 통치 규범을 마련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다.

28. 밑줄 그은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 ①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 ② 태조 왕대부터의 기록이 남아 있다.
- ③ 사초와 시정기 등을 근거로 편찬되었다.
- ④ 춘추관 관원들이 편찬 업무에 참여하였다.
- ⑤ 임진왜란 이전에는 4대 사고에 보관되었다.

정답: ①

* 조선 왕조 실록

조선 태조에서 철종까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각 왕별로 기록한 편년체 사서.

실록의 편찬은 대개 전왕이 죽은 후 다음 왕의 즉위 초기에 이루어지는데, 춘추관 내에 임시로 설치된 실록청에서 담당하였다. '시정기'(관청의 공문서를 종합정리하여 만든 역사편찬 자료)와 사관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사초', 각사 '등록', '승정원일기'가 실록 편찬의 기본 자료였고, 문집·일기·야사류 등도 이용되었으며, 후기에는 '비변사등록'과 '일성록'(국왕의 동정과 국정을 중심으로 기록한 일기체 연대기)도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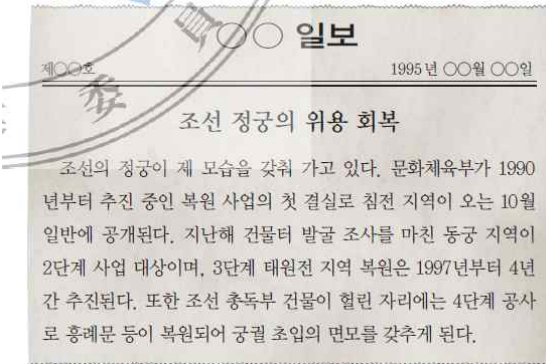
실록은 선왕 및 신하들의 행적과 정책의 득실을 기록한 것이었으므로 국가의 제레나 사신 접대 등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전례를 참고하기 위해 사관이 내용 일부를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열람도 허용되지 않아, 대체로 편찬과정의 공정성과 익명성은 보장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 전기에는 춘추관과 충주·전주·성주 등 4곳에 사고(史庫)가 있었으나, 임난 이후에는 춘추관 외에 태백산(봉화)·오대산(평창)·정족산(강화도). 적상산(무주)에 새로 사고를 설치하여 5대 사고에 실록을 보관하였다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29. 다음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 ㄱ. 선조가 거처하면서 정릉동 행궁으로 불렸다.
- ㄴ. 태조 때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처음으로 지어졌다.
- ㄷ. 일제의 조선 물산 공진회 개최 장소로 이용되었다.
- ㄹ. 부속 건물로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던 증명전이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조선의 정궁 경복궁

경복궁: 세종로 소재. 조선왕조의 정궁(正宮). 한양 천도 후 가장 먼저 서쪽에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社稷)을 완공하고, 정궁인 경복궁(1395)을 세운 뒤, 그 동쪽에 왕실의 신주를 봉안하고 제사를 드리는 종묘(宗廟)가 완성되었다.

경복궁은 조선의 정궁임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져 조선 후기에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1868년(고종 4) 흥선 대원군이 중건하였다.

대한제국이 출범한 후에는 경운궁(덕수궁)이 정궁 역할을 하였고, 일제시대에는 겔내에 총독부 청사(1926~1945)가 들어서고(1915년 박람회인 조선물산 공진회가 개최됨), 해방 이후에는 총독부 건물이 미군청 청사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정부 청사, 박물관 등으로 활용되는 수모를 겪었다.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며 총독부 건물이 철거되고, 국립중앙박물관도 용산으로 이전되어 본래의 모습을 어느정도 되찾았다.

㉠ 세조의 큰아들이자 성종의 친부인 도원군(덕종으로 추존) 사저(私邸)인 경운궁은 본래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능 정릉이 있던 지역으로, 임진왜란 후 정궁 경복궁이 불에 타 이 곳에 행궁(임시 궁궐)이 마련되어 정릉동 행궁으로 불리우다, 광해군 3년(1611)에 정식 궁궐인 경운궁으로 승격되었다.

㉡ **증명전:** 본래 대한제국의 정궁인 경운궁의 별채로 1901년에 지어진 건물로, 처음 이름은 왕실 도서관인 수옥헌(漱玉軒)이다. 1904년 덕수궁이 불타자 고종의 집무실인 편전이자 외국사절 알현실로 사용되었다. 후에 을사조약(1905)이 체결되었던 비운의 장소로 유명하다.

30.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가) 왜적이 대거 쳐들어왔다. 부산 첨사 정발이 성의 서문을 지키며 결사적으로 항전하였으나 끝내 전사하고, 성은 함락되었다.
(나) 부원수 이괄이 금부도사 고덕를 등을 죽이고 군사를 일으켜 반역하였다. 도원수 장만이 역적을 베어 바치는 자가 있으면 직의 유무를 막론하고 1품에 제직(除職) 하겠다는 국왕의 뜻을 군민(軍民)에게 전달하였다.

〈보 기〉
ㄱ. 허준이 동의보감을 편찬하였다.
ㄴ. 속오법에 따라 지방군을 개편하였다.
ㄷ. 청이 군신 관계를 요구하며 침입하였다.
ㄹ. 허적의 주장에 따라 상평통보가 유통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 임진왜란(1592)과 이괄의 난(1624) 사이의 역사적 사실

- 1592년 4월, 정명가도를 내걸고 왜군이 부산진과 동래성으로 침략해 오자, 정발과 송상현 등이 힘껏 싸웠으나 막지 못하고 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 인조반정(1623) 과정에서 함경도 병마절도사로 병력을 동원하여 공이 큰 이괄이 2등 공신으로 되자 평안도 절도사 겸 부원수로 임명된 후 불만을 품고 1624년 난을 일으켜, 도성이 함락되고 국왕이 공주로 피난가기까지도 하였으나 도원수 장만에 의해 토벌되었다.

㉠ 광해군 때에 허준이 '동의보감(1610)'을 펴내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및 일본의 의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책은 예방 의학에 중점을 두고 전통 약재를 사용한 치료 방법을 개발한 것이 특색이다.

㉡ 임진왜란 중에 제승방략 체제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다시 진관을 복구하고 속오법에 따라 군대를 편제하는 속오군 체제로 정비하였다(1594).

속오군은 위로는 양반에서부터 아래로는 노비에 이르기까지 편제되어,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향촌 사회를 지키다가 적이 침입해 오면 전투에 동원되었다.

㉢ 정묘호란(1627) 이후 후금은 세력을 더욱 확장하여 국호를 청이라 고치고, 군신 관계를 맺자며 다시 대군을 이끌고 침입해 왔다(1636.12). 이를 병자호란이라 한다.

㉤ 숙종 때에는 남인 허적의 건의에 따라 상평통보(1678)가 주조되어 18세기 후반부터는 세금과 소작료도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누구나 동전인 상평통보만 가지면 전국 어디에서나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어, 상업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31. 밑줄 그은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 <보 기> —

- ㄱ. 방납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였다.
- ㄴ. 공중에 관계없이 1결당 4~6두 정도를 부과하였다.
- ㄷ. 지역에 따라 쌀, 면포, 삼베, 동전 등으로 징수하였다.
- ㄹ.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선무군관포를 수취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조선 후기 공납의 개혁 대동법

조선 후기들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가자, 농민들의 공납(방납)의 폐단을 개선하고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결국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1608, 이원익의 건의), 이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1659년 김육의 건의로 삼남 지방으로 확대, 1708년 완결, 평안, 함경도와 제주도 제외).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상공만 폐지, 별공과 진상은 여전히 존속). 주무 관청은 선해청이다.

농민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이 때문에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던 공물 부담은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또한 조세를 현물 징수에서 쌀, 베, 돈으로 대신됨으로 조세의 금납화를 촉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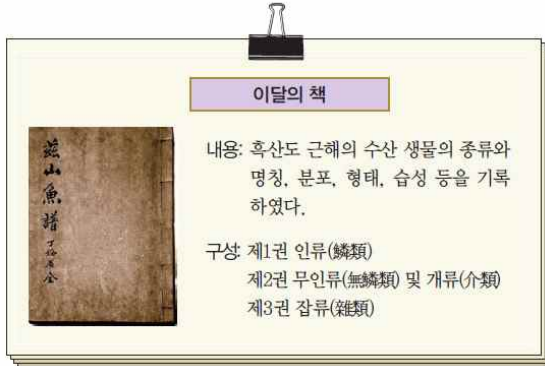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라는 어용 상인이 나타났다.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공인이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상품 수요가 증가하였다. 농민도 대동세를 내기 위하여 토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쌀, 베, 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

㉠ 조선 후기에는 농민들의 전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는 연분 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 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6두로 고정시켰다. 이를 영정법이라 한다(1635).

㉡ 조선 후기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개혁 방안이 논의되다, 영조 때에 균역법이 시행되었다(1750). 이로부터 농민은 1년에 기존의 군포 2필에서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32. 다음 책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조선인 최초로 세례를 받았다.
- ② 신유박해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
- ③ 북경에 다녀온 뒤 연행록을 남겼다.
- ④ 100리 척을 사용한 지도를 제작하였다.
- ⑤ 청으로부터 시헌력 도입을 건의하였다.

정답: ②

* <자산어보를 저술한 정약전

순조가 즉위한 직후(노론 벽파의 집권)에 대탄압이 가해졌다(신유박해, 1801). 이 사건으로 이승훈(1783년 최초의 영세자), 정약종(정약용의 3째형), 주문모(중국인 신부) 등 300여 명의 신도가 처형당하고, 정약전(정약용의 2째 형, 유배지 흑산도에서 어류서인 자산어보 저술), 정약용(강진 유배, 수많은 실학서 저술) 등이 유배를 당하는 등 천주교 전래에 앞장섰던 실학자 및 많은 수의 양반 계층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③ 대청 사신의 기행 일기를 연행록이라 하고 홍대용, 박지원의 작품이 유명하다. 좁은 의미의 연행록은 1791년 문인 김정중이 사행 일원으로 따라가 적은 연행록이 유명하다.

④ 18세기 정상기(1678~1752)의 동국지도(1740)는 최초로 100리 척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과학적인 지도 제작에 공헌하였다.

⑤ 조선 후기 역법은 김육(1580~1658) 등의 노력으로 시헌력이 도입되었다(1653). 이는 서양 선교사인 아담 샬이 중심이 되어 만든 것으로 청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종전의 역법보다 한 걸음 더 발전한 것이었다. 조선에서는 약 60여 년 간의 노력 끝에 시헌력을 채용하였다.

33.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우리나라에서 [가]을/를 현직(顯職)에 서용하지 말자는 의논은 처음 서선에게서 나왔는데, 그 뒤로 가면 갈수록 한 마디 한 마디가 더욱 심각해져 마침내 자손까지 영원히 금고(禁錮)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부자(父子)의 은혜도 군신(君臣)의 의리도 없으니, 윤리를 해치고 어기는 것으로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영조실록」-

- ① 음서와 공음전의 혜택을 받았다.
- ② 양인 신분으로 천역에 종사하였다.
- ③ 공장안에 등록되어 생산을 담당하였다.
- ④ 소속 관청에 매년 신공(身貢)을 바쳤다.
- ⑤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었다.

정답: ⑤

* 서열에 대하여

서열(양인 첩의 자제:서, 천인 첩의 자제:열)은 양반의 자손 가운데 첩의 소생을 이르는 말이다. 서열은 중인과 같은 신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중서라고도 불리었다. 이들은 문과에 응시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간혹 무관직에 등용되기도 하였으나 제사나 재산 상속 등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서열은 양반 사대부의 소생으로 인구비중은 높았으나 성리학적 명분론에 의하여 서열금고에 의해 전문기술직 이외에는 벼슬길이 법제적으로 막혀있는 등 여러 분야의 사회 활동에서 각종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커져 갔다(賤者受母-限品敍用).

서열에 대한 차별은 임진왜란 이후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전란으로 재정적 타격을 받은 정부가 납속책을 실시하고 공명첩을 발급하자 서열들은 이를 이용하여 관직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영·정조 때에 서열을 어느 정도 등용하자 이

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을 시도하여 수차례에 걸쳐 집단적으로 상소를 올려 동반(문반)이나 홍문관 같은 청요직으로의 진출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였다(서열통청운동). 그리하여 정조 때에는 정유서열허통절목(1777)을 발표를 계기로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등 서열 출신들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1851(철종 2년) 신해통공 조치로 사관(四館) 등용에 조치가 취하여져 서열 문과 합격생의 승문원 분관이 허용되어 완전한 청요직 허통이 이루어졌다.

① 고려 전기의 지배층인 문벌귀족들은 5품 이상 관료들의 자제에게 주어지는 음서(과거를 치루지 않고 관직에 진출)와 공음전(세습 토지)을 통하여 권력과 부를 세습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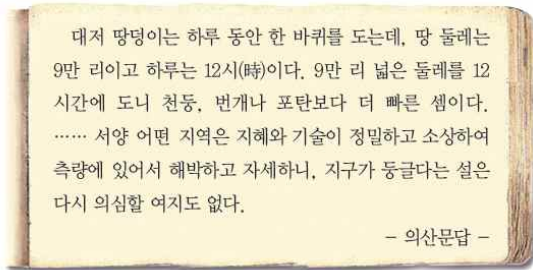
② 고려, 조선에서는 양인 중에도 천역을 담당하는 계층이 있었는데, 이들을 신랑역천이라 하였다. 조선에서는 칠반천역이 있는데, 수군, 조례(관청의 잡역 담당), 나장(형사 업무 담당), 일수(지방 고을 잡역), 봉수군(봉수 업무), 역졸(역에 근무), 조졸(조운 업무) 등 힘든 일에 종사하는 일곱 부류이다.

③ 조선 시대에는 전문적인 기술자를 공장안(工匠案)에 등록시켜 서울과 지방의 각급 관청에 속하게 하고, 이들에게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작, 공급하게 하였다.

④ 조선 시대의 노비는 국가에 속한 공노비와 개인에게 속한 사노비가 있었다. 사노비는 주인집에서 함께 사는 솔거 노비와 주인과 떨어져 독립된 가옥에서 사는 외거 노비가 있었다. 외거 노비는 주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에 신공을 바쳤으며, 공노비도 국가에 신공을 바치거나 관청에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34.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 ② 오학론에서 성리학의 폐해를 지적하였다.
- ③ 체질을 연구하여 사상 의학을 확립하였다.
- ④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 ⑤ 무한우주론을 근거로 화이의 구분을 부정하였다.

정답: ⑤

* 무한우주론을 펼친 홍대용에 대하여

유수원(1694~1755)에 의해 시작된 중상적 실학사상은 18세기 후반에 청나라를 다녀온 홍대용(1731~1783), 박지원(1737~1805), 박제가(1750~1805) 등에 의하여 크게 발전하여 북학파를 형성하였다.

특히 홍대용은 서양과학의 수용에 적극적이었고 그 중에서도 천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지구설뿐만 아니라 지전설에 입각한 천문학적 지식, 과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삼아, 둥근 지구에서 보면 모든 나라가 다 지구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보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화이관)을 비판하였다.

그는 청을 왕래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여러 가지 저술을 남겼다. <임하경륜>에서 성인 남자에게 2결의 토지를 나누어 주고 병농일치의 군대조직을 제안하였고, <의산문답>에서는 실옹(實翁)과 허자(虛子)의 문답형식을 빌어 지금까지 믿어온 고정관념을 상대주의 논법으로 비판하며 지전설, 무한우주론, 우주인의 존재 등의 획기적인 주장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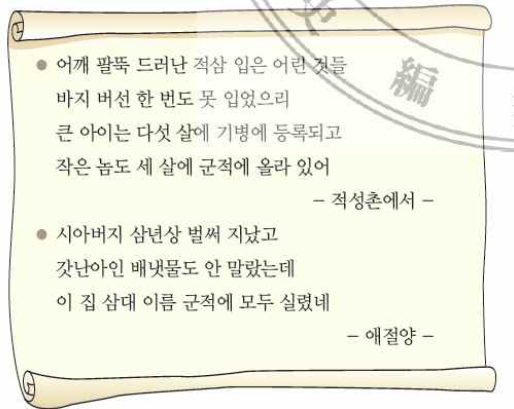
① 정조 때 서얼 출신 유득공(1748~?)은 '발해고'(1784)에서 발해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그는 이 책에서 남의 신라와 북의 발해를 남북국 시대라 부를 것을 처음으로 제안하였으며, 고려가 발해사를 찬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구려·발해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던 여진·거란에 대해 영토적 권리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② 다산 정약용(1762~1836)은 오학론에서 당대의 주요 학문 경향인 성리학, 훈고학, 문장학, 과거학(科擧學)·술수학의 다섯을 들어 그 폐단을 비판하였다.

③ 19세기에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1894)을 저술하여 사상 의학을 확립하였다. 이는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4가지로 구분하여 치료하는 체질 의학 이론으로, 오늘날까지도 한의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④ 18세기 초에 정제두(1649~1736)는 몇몇 소론 학자가 명맥을 이어가던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학파로 발전시켰다. 그는 일반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인정하였으며, 양반 신분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이 정권에서 소외된 소론이었기 때문에, 그의 학문은 집안의 후손과 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계승되었다.

35. 다음 자료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흥선 대원군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호포법을 제정하여 군포를 징수하였다.
- ② 5군영에서 2군영으로 군제를 개편하였다.
- ③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④ 속대전을 편찬하여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⑤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여 관리를 재교육하였다.

정답: ①

* 군역의 개혁 호포제

- 2번째 시는 군적의 문란을 비판한 정약용이 1803년에 지은 애절양(哀絶陽: 남자의 생식기를 자름을 슬퍼함)이라는 시이다.

- 조선 후기에 군역의 부담이 과중해지자 농민들은 군포계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군포를 부담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노비나 양반으로 신분을 바꾸어 군역을 피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이것은 농민들이 군역 부과에 저항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마침내 군역법이 시행되었다(1750). 이제 농민들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또한 군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란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장세·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그러나 영조 이후 조선 후기의 수취 체제는 총액제에 의한 재정 운영이 일반화되어, 양역(군역)은 정총제로 전세는 비총제로, 환곡은 환총제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모든 부세가 공동납 형태로 징수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재정은 총액제로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총액징수제로 인하여 인징(隣徵)·족징(族徵)이라 하여 도피자가 10년이 넘으면 면세하게 되어 있었으나 도망자의 납세분을 친척이나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서 강제로 징수하고, 황구첨정이라 하여 만 14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군적에 올리고 그 세금을 착복하였으며, 백골징포라 하여 만 60세가 넘었거나 사망한 자에게 징수하는 등 군역의 폐단은 그치지 않았다.

흥선 대원군(1863~1873)은 이러한 군역의 폐단을 포함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하여,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전정을 바로잡고, 군역 제도를 개혁(호포제: 양반에게도 군포 부과) 하여, 환곡제를 사창제(양반 지주 운영)로 개혁하였다.

② 개항(1876) 이후 군사력 강화를 위해 종래의 5군영을 무위영과 장어영의 2군영으로 통합 개편하는 한편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신설하였다(1881, 교관 일본인).

③ 고종의 광무개혁(1898~1904) 때에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토지 소유 문건인 지계를 발급하였다.

④ 영조 때에 법전으로 속대전(1746)을 편찬하여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⑤ 정조(1776~1800)는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을 재교육시키는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36. (가)에 들어갈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황룡촌 전투에서 농민군 승리
- ② 삼례에서 교조 신원 운동 전개
- ③ 백산에서 농민군 4대 강령 발표
- ④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 개혁안 추진
- ⑤ 조병갑의 학정에 분노하여 고부 관아 습격

정답: ④

*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음력 기준)

<교조 신원 운동>

공주 집회(1892.10) -> 삼례 집회(1892.11)
-> 서울 복합 장소(1893.2) -> 보은 집회
(1893.3, 척왜양을 부르짖음)

<고부 봉기: 1894.1.11>

- 직접적 원인: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만석보 저수지 축조 문제)
- 전봉준이 사발통문을 돌려 1천여 명의 농민을 이끌고 고부 관아 습격 -> 관리들을 징벌한 뒤 해산(3.3)
- 정부는 조병갑을 탄핵(후임 박원명)하고 안핵사(이용태) 파견

<1차 봉기>: 1894.3.20, 반봉건, 남접 중심

- 안핵사(이용태)가 봉기 관련자를 역적으로 몰아 탄압
- 전봉준(총대장), 김개남, 손화중 등 무장 기포(3.20, 재봉기) -> 고부 점령 -> 각지 동학군 백산 집결(3.25, 백산 봉기, 4대 강령 선포) -> 황토현(정읍)에서 감영군 격퇴(4.7), 황룡촌(장성) 전투에서 경군 격퇴(4.23) -> 전주성 점령(4.27)
- 정부의 요청에 따라 청군 파견(아산만 상륙 5.5~7) -> 텐진 조약 위반을 명분으로 일본군 파견(인천 상륙 5.6~10)

- 전주 화약 체결(5.7): 동학 농민군은 외국 군대 철수와 폐정 개혁을 조건으로 정부와 화친 -> 집강소 설치(5.8) -> 일본의 궁성 침입(6.23)

<집강소 시기: 1894.5.8.~9.12>

- 전라도 각 고을에 설치한 동학 농민군의 자치 기구
- 폐정 개혁안 실천 -> 불량한 지주와 부호 처벌, 신분 질서 해체, 치안 유지

<2차 봉기: 1894.9.12.~12.31>, 남접+북접, 항일구국투쟁

-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6.23) 내정간섭, 개혁 강요 ->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봉기
- 남접(전봉준)·북접(손병희) 연합부대 형성(논산에 대본영 설치): 10.12~16
- 전봉준이 이끄는 주력 부대가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정부군에게 패퇴(11.8~15) -> 전봉준 등 동학 지도자 체포(12.2~11)

37.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역사 인물 카드

1833년 경기도 포천 출생

1846년 이항로의 문하에 들어감

1855년 명경과 급제

1873년 서원 철폐를 비판한 계유 상소를 올림

1906년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킴

1907년 대마도에서 순국



- ① 중추원 고문으로서 자주 독립을 강조하였다.
- ② 대동강에 침입한 제너럴 서민호를 불태웠다.
- ③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였다.
- ④ 지부복궐척화의소를 올려 왜양일체론을 주장하였다.
- ⑤ 13도 창의군을 지휘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정답: ④

* 위정척사의 대표적 인물 최익현

가난한 선비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최익현(1833~1906)은 14세 때 아버지의 명에 따라 이항로의 제자로 들어가 병과에 급제하여 이조 전랑까지 역임하였다.

그는 흥선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과 당백전 발행, 서원 철폐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 하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뒤이어 집권한 민씨 세력과도 일본과의 수교 문제로 대립하였다.

그리하여 강화도 조약(1876) 때에는 왜양일체론에 입각하여 지부복궐(도끼를 메고 곁에 엎드림)의 5불가 척화 상소를 올렸다. 그는 여기서 일본을 포함한 외래 자본주의의 침략적 본질과 해독성을 날카롭게 간파하였다

63세 되던 해(1895) 최익현은 명성 황후 시해 사건에 반발하였고, 단발령에도 “내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며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을사조약(1905.11)이 체결되자 70세가 넘는 나이에도 의병을 지휘하다 체포당하였다. 결국 쓰시마 섬(대마도)으로 유배되었고 단식 끝에 순국하였다.

① 갑신정변(1884)의 주역 중 하나였던 서재필(1864~1951)은 중추원 고문으로 독립협회(1896.7)를 설립하고, 청의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열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워(1896~1897) 자주독립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②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1807~1877)는 비록 통상개화론자이지만 평양 감사로서 통상을 요구하며 만행을 부린 미 상선 제너럴 서민호를 군민과 함께 불태웠다(1866)

③ 최익현의 제자인 임병찬(1851~1916)은 쓰시마 유배에서 풀려난 후 고종의 밀지를 받고 전국 곳곳의 의병장과 유생들을 모아 비밀결사인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1912). 이 단체는 복벽주의 이념에 따라 국권을 회복한 후 고종을 복위시키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전국적인 의병을 일으키려 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총리대신과 조선 총독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려고 계획하던 중에 조직이 발각되어 해체되었다(1914.5).

⑤ **이인영(1867~1909):** 한말의 의병장. 명성 황후가 시해되자 의병을 일으켰고 정미의병(1907) 때 관동창의대장이 되어 양주에서 각지 의병과 연합군을 조직하였지만(13도 창의총대장) 아버지의 별세로 군사장 허위에게 지휘를 맡기고 낙향하였으며, 작전은 결국 실패하였고 후일 부모의 묘를 성묘하다 체포되어 순국하였다. 체포되어 심문받을 때 그가 일경에게 말한 “불효는 불충이다”라는 말은 위정척사 항일의병의 한계를 보여준다.

39. (가)~(마) 시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1876	1882	1889	1896	1904	1907
(가)	(나)	(다)	(라)	(마)	
강화도 조약	임오 군란	함경도 방곡령 선포	아관 파천	한·일 의정서 체결	국제 보상 운동

- ① (가) - 전환국이 설치되어 화폐 발행이 시작되었다.
- ② (나) - 고딕 양식의 명동 성당이 완공되었다.
- ③ (다) - 최초의 상업 광고가 실린 한성주보가 발행되었다.
- ④ (라) - 서울과 인천 사이에 철도가 최초로 개통되었다.
- ⑤ (마) - 덕원 지방의 관민들이 원산학사를 설립하였다.

정답: ④

* 개항기의 문물 연대기

1876년 개항 이후 개화 정책에 따라 박문국에서는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1883)를 발간하였고, 기기창(1883)에서는 서양 무기를 제조하였으며, 전환국(1883)에서는 새로운 화폐를 주조하였다.

교통·통신에서는 전신(1885)이 설치되면서 국제 전신망이 연결되었으며, 궁궐과 상류 사회에는 전화(1896)도 보급되었다. 문명의 불인 전등(1887)이 경복궁의 밤을 밝혔으며,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전차(1898)가 다니게 되었고, 서울 시내 일부에 전기가 들어왔다.

철도는 경인선이 개통(1899)된 후 러·일 전쟁(1904~1905) 중에 일본의 군사적 필요에 의해 경부선(1905), 경의선(1906)이 부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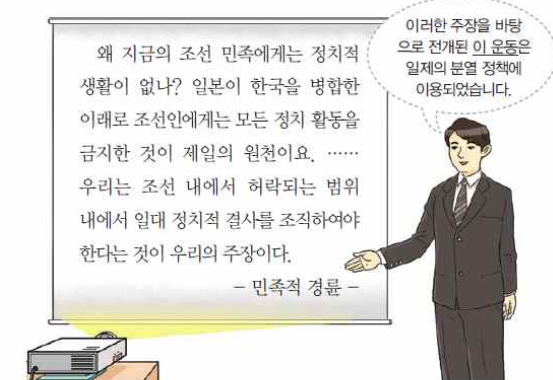
서양 의학이 보급되면서 근대 의료 시설인 광혜원(1885)을 비롯하여 많은 병원이 들어섰고, 서양식 건축물인 명동 성당(1898, 고딕 양식)과 덕수궁 석조전(1900, 르네상스 양식) 등이 세워졌다.

③ 한성순보를 계승한 한성주보(1886.1~1888.7)는 최초의 상업광고인 세창양행 광고를 게재하였다.

⑤ 개항 이후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1883년 봄, 함경도 덕원 주민들에 의해 최초의 근대 학교인 원산학사가 설립되어 근대 학문과 무술을 가르쳤고, 같은 해 8월, 정부는 외국어 통역관 양성을 위해 동문학을 세웠다.

40.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북벌주의가 이념적 바탕이었다.
- ② 보안법의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신민회가 해체되는 배경이 되었다.
- ④ 이광수, 최린 등이 중심 인물이었다.
- ⑤ 조선 혁명 선언을 행동 지침으로 삼았다.

정답: ④

*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자치론

‘先실력양성 後독립’의 민족개조론(1922)을 주장하던 이광수가 ‘민족적 경륜’(1923) 발표하자 이후 자치론(타협적 민족주의)이 확산되었다. 1924년 초의 자치론은 동아일보의 송진우 등과 천도교의 최린이 중심이 되어 여론을 떠보고, 연정희와 같은 조직을 만들려 하다가 강한 반발여론에 부딪쳐 미수에 그쳤다.

1926년 후반, 자치운동단체인 연정회를 조직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던 천도교 신파의 최린과 동아일보사의 김성수, 송진우 등은 다시 비밀리에 자치운동단체를 조직하려 하였다. 물론 이들의 계획은 무산되었으나, 이들의 자치운동단체 재결성 움직임은 신간회를 발기시키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① 북벌주의는 대한제국을 재건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출현으로 북벌주의는 완전히 극복되었다.

②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애국계몽운동이 활발해지자 일제는 1907년 7월 보안법과 신문지법을, 1909년 2월에는 출판법을 제정하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였다.

③ 비밀결사 애국계몽운동단체 신민회는 데라우치 총독 암살미수사건과 관련된 안악 사건을 날조한 105인 사건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다(1911).

⑤ 1919년 11월 김원봉, 윤세주 등이 만주 길림에서 조직한 의열단은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1923, 민중의 직접적인 폭력혁명 주장)을 지침으로 삼아 직접적 투쟁방법인 암살과 파괴·테러라는 과격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해나갔다.

41.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연보

1867년 서울 지동 출생

1905년 나인영, 가산도 등과 함께
을사오적 암살 모의

1910년 6형제 50여 명의 가족이
전 재산을 처분하여 독립
운동 자금을 마련한 후
만주로 망명

1911년 재만 한인 자치 기관인 경학사를 조직

1931년 항일 구국 연맹을 결성하고 비밀 행동 조직인 흑색
공포단을 조직

1932년 다롄에서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모진 고문 끝에 순국



- ① 의열단을 창설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 ②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
- ③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 ④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대전자령 전투에 참여하였다.
- ⑤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흥경성 전투를 지휘하였다.

정답: ③

* 삼원보를 개척한 이회영(1867~1932)

그는 일찍이 신민회 회원으로 동생 이시영과 함께 엄청난 재산(오늘날 화폐단위로 수 천 억원대)을 정리하고 서간도 삼원보 독립기지 개척에 앞장섰다.

이곳에서 자치기관으로는 경학사를, 학교로는 신흥강습소(후일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는 상해 임시정부와는 노선이 달라(무정부주의에 경도) 주로 북경을 무대로 하여 60에 가까운 나이에 불구하고 재중국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1924)을 조직하였고, 백정기 의사(義士)와 함께 비밀 행동조직 흑색공포단(1932)을 조직하며 의열 투쟁을 준비하던 중 일경에 잡혀 고문·옥사당하였다.

① 의열단과 조선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를 창설한 인물은 약산 김원봉(1898~1958)이다.

② 임정 산하 한국 광복군 2지대(대장 이범석)를 중심으로 미국과 협조하여 일본군 학도병 출신(김준엽, 장준하 등)을 중심으로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으나(정진군, 1945.3), 예상보다 빠른 일제의 패망으로 실현하지 못하였다.

④ 1930년대 초반 북만주의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1888~1957)의 지휘 아래 중국군(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1932), 사도하자 전투(1933), 대전자령 전투(1933)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⑤ 1930년도 초 남만주(서간도) 지역에서 조선 혁명군은 양세봉(1896~1934)의 지휘 아래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그러나 조선 혁명군은 1934년 양세봉이 살해당하고, 간부들이 체포, 처형당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42. (가)~(라)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가) - 나선 정벌의 승전지를 조사한다.
 ㄴ. (나) - 한인 애국단이 결성된 장소를 찾아본다.
 ㄷ. (다) - 명동 학교 터와 윤동주 생가를 살펴본다.
 ㄹ. (라) - 옥정산의 정혜 공주 묘를 조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만주, 연해주 지역의 역사

- (가) 북만주(송화강과 흑룡강 접경 주변)
 (나) 연해주(블라디보스토크 주변)
 (다) 북간도(용정, 연길 주변)
 (라) 서간도 또는 남만주(유하 주변)

㉠ **나선 정벌**: 효종 때에는 병자호란의 치욕을 갚고 명의 은혜를 갚기 위해 양성하였던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 군대를 양성하던 중, 연해주 흑룡강 방면으로 남하하는 러시아 세력을 격퇴키 위해 청은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여 북벌 훈련 중의 조선 군사(조총병)을 보내어 청나라 군사와 함께 송화강과 흑룡강 접경 지역인 어라이무청, 하바로프스크 정벌한 일(1차: 1654(변급), 2차: 1658(신유)).

㉡ **한인 애국단**: 1920년대 후반 이후 침체기에 빠진 임시정부에 활기를 불어 넣고, 만보산 사건(일제의 술책으로 1931년 7월에 있었던 만주지역 한,중 농민의 유혈충돌)과 만주 사변(1931년 9월에 있었던 일제의 만주 침공. 일제는 이후 이 지역의 조선인을 우대하고 중국인을 비하하는 정책을 펼쳐 반한감정이 고조되었다) 등으로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이 고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구는 상해에서 1931년 10월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여 적극적인 의열 투쟁을 전개하였다.(이봉창, 윤봉길 의거).

㉢ **북간도**: 19세기 후반 이후 우리 민족이 많이 이주하여 주민의 80%를 차지할 정도였고, 일찍부터 용정촌, 명동촌 등 많은 한인 집단촌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를 중심으로 애국지사들은 간민회 등 자치 단체를 만들어 동포 사회를 이끌어 가면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간민회는 민족 교육과 한인들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북간도 한인 사회의 형성과 단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 서전서숙(1906, 이상설, 용정), 명동 학교(1908, 김약연, 화룡) 등 민족 학교를 세워 철저한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지역 출신의 항일 문인으로 윤동주(1917~1945)가 유명하다.

㉣ **동만주**: 길림성 돈화현은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한 곳이며, 이 곳을 중심으로 많은 무덤이 남아 있다. 이 중에서 길림성 돈화현 옥정산 고분군의 정혜 공주묘는 굴식 돌방무덤으로 모줄임 천장 구조가 고구려 고분과 닮았다.

43. 다음 자료에 나타난 두 운동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신간회가 창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② 언론 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 ③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면서 중단되었다.
- ④ 제4차 조선 교육령의 공포로 시작되었다.
- ⑤ 전국적인 모금 운동과 더불어 진행되었다.

정답: ②

* 1930년대 농촌 계몽 운동

1920년대 후반부터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궁핍한 농촌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문제들을 우선 해결하자는 취지 아래 학생들을 중심으로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에 앞장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문맹 퇴치, 생활 개선 등 농촌의 당면 문제들을 일제가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해결하려 하였다.

조선일보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는 구호와 함께 한글 교재를 보급하고, 전국 순회강연을 개최하면서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하였다(1929).

동아일보도 1931년부터 '브나로드 운동'이란 이름을 내세워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했는데, 여름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을 모아 행사를 기획하고 교재를 공급하였다.

4년 동안 5,700여 명이 참여한 브나로드 운동에서 학생들은 숙식을 비롯한 거의 모든 비용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일제에 의해 전면 금지당한 1935년 이후에도 학생들은 비밀 결사를 만들어 농촌 계몽 운동을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하였다

① 1920년대 들어서 이광수, 최린 등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자치론의 확산은 좌우 합작 단체인 신간회(1927~1931)를 발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③, ⑤ 교육 실력 양성의 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인을 위한 고등 교육 기관인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 192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이상재 등은 1922년 민립 대학 기성 준비회를 결성하였다. 전국에 지방부를 조직하는 호응 아래 1923년 3월에는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가 조직되어 신지식과 교육의 진흥을 위한 고등 교육 기관으로써 민립 대학 설립을 추진하였다.

대학 설립을 위한 '한민족 1천만이 한사람이 1원씩'이라는 구호와 모금운동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까지 전개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모금 운동이 쉽지 않았고, 1920년대 중반의 연이은 자연재해로 모금 운동이 중단되었다.

또한 일제는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방해하고, 일부 한국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1923년 경성 제국 대학 관제를 발표하고 1924년 설립하였다.

④ 태평양 전쟁 이후인 1943년 일제는 4차 조선 교육령을 제정하여 한국어 과목을 폐지하고 교육기관의 수업 연한을 단축하고 학생들을 군사훈련 및 생산현장에 투입하는 등 전시 교육 체제를 강화하였다.

44.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의 일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물자의 생산·수리·배급·양도 기타의 처분, 사용·소비·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① 토지를 점탈하기 위해 토지 조사령을 공포하였다.
- ② 지하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조선 광업령을 제정하였다.
- ③ 일본식 성명을 강요하기 위해 조선 민사령을 개정하였다.
- ④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회사령을 공포하였다.
- ⑤ 조선 불교의 자주성을 말살하기 위해 사찰령을 제정하였다.

정답: ③

* 총동원 체제 시기(1938~1945)의 모습

일제는 중일전쟁(1937)의 배경 속에서 1938년 국가 총동원령을 선포하고 1940년대에는 태평양 전쟁(1941)을 도발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 하려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내선 일체의 구호를 내세워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또,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쳐 쓰도록 하고(창씨개명-조선민사령 개정, 1939),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궁성 요배, 신사 참배 등을 강요하였다.

인적수탈로는 강제 징용으로 한국인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육군 특별) 지원병(1938), 학도 지원병 제도(1943), 징병 제도(1944) 등을 실시하여 수많은 우리 젊은이를 전쟁에 동원하였다. 또, 여자 정신대 근무령(1944)을 통해서 젊은 여성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여 군수 공장 등에서 혹사시켰으며, 그 중 일부는 전선으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물적 수탈로는 양곡 배급제와 함께 미곡공출을 실시하였으며(1940), 물자 부족이 심화되자 일제는 군수 산업 이외의 기업 활동을 통제하기도 하였으며, 광물 자원의 약탈은 물론 학교의 철문이나 집안의 손가락까지 강제로 빼앗아 갔다(금속 공출, 1942).

①, ②, ④ 한일병합(1910) 후 일제는 경제 구조를 일제의 상품과 자본을 수출하고, 한국의 식량과 원료를 수탈할 수 있도록 토지 조사령(1912), 임야조사(1918), 회사령(1910), 삼림령(1911), 어업령(1911), 광업령(1915)을 공포하였다.

⑤ 일제는 불교를 통제할 목적으로 사찰 재산의 처분이나 주지 임명까지 허가를 받도록 한 사찰령(1911)을 제정했으며, 일본 불교를 침투시켜 우리 불교를 일본 불교에 통합하려 하였다. 이에 맞서 한용운 등은 항일 운동에 참여하면서 불교의 대중화에 노력했고, 일부 청년 승려들은 조선 불교 유신회를 조직하여 일본의 불교 통제에 맞서 싸웠다.

45. 다음 문화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다산 서거 99주년 기념 사업 추진이 계기가 되었다.
-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다.
- 1930년대 중반에 민족 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조선의 언어, 역사, 문화를 연구하는 것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 ① 가갸날을 제정하는 배경이 되었다.
- ② 조선사 편수회 설치의 계기가 되었다.
- ③ 여유당전서를 간행하면서 제정되었다.
- ④ 원각사를 설립하여 은세계를 공연하였다.
- ⑤ 신경향파 문학이 대두하는 배경이 되었다.

정답: ③

* 1930년대 중반 조선학 운동

조선 '얼'을 강조한 정인보와 조선 '심'을 강조한 문일평과 안재홍 등 일본의 식민지통치에 반대하고 협조를 거부했던 비타협적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1934년 '여유당전서' 간행을 계기로 전개한 민족문화 수호운동. 과거의 민족주의 역사학이 국수적·낭만적이었음을 비판하고 실학에서 자주적인 근대사상과 우리학문의 주체성을 찾으려 하였다.

① 3·1 운동 이후 임경재, 장지영 등의 주도로 조선어 연구회가 창립(1921)되면서 국어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이들은 한글 연구와 더불어 강습회를 열어 한글 보급에 노력하였다. 또, 한글 기념일인 '가갸날'(1926)을 제정하여 우리말 쓰기를 권장하였고, '한글'(1927)이라는 잡지를 간행하여 한글 대중화에 이바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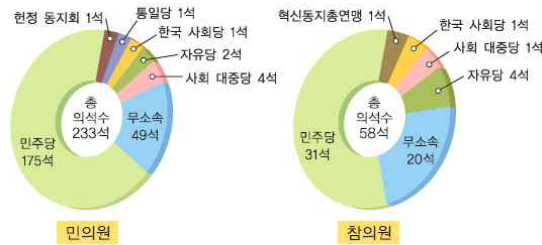
② 일제는 침략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철저히 왜곡하거나 말살하려고 하였다. 일제는 타율성, 정체성, 당파성을 주장하는 식민주의 사관을 앞세워 한국사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부정하였다. 특히 총독부가 설치한 조선사 편수회(1916)는 식민주의 사관을 토대로 조선사를 편찬하여 한국사 왜곡에 앞장섰다.

④ 1908년 극장 원각사에서 이인직의 '은세계'가 공연되며 신극 운동이 시작되었다.

⑤ 1920년대 후반에는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식민지 현실의 계급 모순을 적극 비판하는 프로 문학(신경향파)이 등장하여 카페(KAPE)를 결성하였다(1925).

46. 다음과 같이 국회가 구성되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내각 책임제와 지방 자치제가 실시되었다.
- ② 베트남 파병과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 ③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과 농지 개혁법이 공포되었다.
- ④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 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 ⑤ 금융 실명 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 윤리법이 제정되었다.

정답: ①

* 5대 국회(1960.7~1961.5: 장면 정권 관련)

4.19 시민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후 구성된 허정 과도 정부는 부정 선거를 계획한 정부 각료와 자유당 간부를 구속하였다. 국회는 6월 15일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7월 29일, 민의원과 참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민주당 후보가 대부분 당선되었다. 이후 구성된 국회에서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장면을 국무총리로 지명하여 장면 내각이 성립되었다.

장면 내각은 출범 직후 시정 방침을 발표하고 개혁에 나섰다. 그러나 다양한 민주화 요구를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으며, 약속했던 부정 선거 책임자와 부정 축재자 처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한편, 이승만의 반공 정책으로 억압되었던 평화 통일 운동이 분출하였다. 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남 전기, 이북 쌀'과 같은 구호를 내세우며 남북 학생 회담

을 주장하였다. 혁신계 정당과 단체들도 남북 정당과 사회 단체의 정치 협상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장면 내각은 유엔이 제안한 남북 총선거를 통한 평화 통일론을 수용하면서도,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에는 반대하였다.

또한 장면 내각은 공무원 공개 채용 제도와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조치 등을 단행하였고, 군비 축소를 통한 경제 개발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집권당인 민주당은 대통령(구파)과 총리(신파)를 중심으로 분열·대립하다 1961년 박정희 군부 세력에 의한 5.16 군사정변으로 붕괴되었다.

① 1960년 11월 5대 국회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시장, 시·읍·면·동의 장을 직선제로 뽑고 도·시·읍·면 의회 의원을 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법 개정을 하고, 동년 12월에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다(1995년 재개).

② 박정희 정권 대에 한·일 협정(1965) 체결의 대가로 들여온 외화와 베트남 파병(1965~1973)에 따른 베트남 특수는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③ 제헌국회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고(1948.9) 토지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농지개혁법을 제정(1949.6)하여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다.

④ 1988년 노태우 정권 때에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사회복지가 확대되었다.

⑤ 문민정부로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공직자 윤리법 개정(1993),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제(1993), 금융 실명제(1993) 등을 실시하였다.

47. 다음 성명서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오인(吾人)은 삼천만 한인(韓人)과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 영, 미, 화(和), 가(加), 호(濠) 기타 제국의 대일 선전이 일본을 격파시키고 동아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됨을 축하하여 자(茲)에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하노라.

1. 한국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였으니 한 개의 전투 단위로서 추축국에 선전한다.

2. 1910년의 합병 조약 및 일체 불평등 조약의 무효를 거듭 선포하며 아울러 반침략 국가의 한국에서의 합리적 기득 권익을 존중한다. (하략)

1919	1926	1931	1937	1942	1945
(가)	(나)	(다)	(라)	(마)	
3·1 운동	6·10 만세 운동	만주 사변	중·일 전쟁	조선어 학회 사건	8·15 광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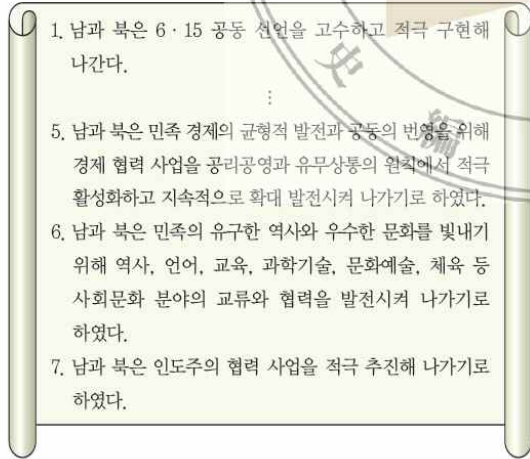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④

* 임시정부의 대일선전 포고(1941.12.10)

태평양 전쟁이 발발(1941.12.8)하자 임정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고, 임정과 라이벌 관계였던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 참여를 결의하여 1942년 7월에는 조선 의용대의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편입되었다. 한국 광복군은 연합군과 공동으로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참전하였다(1943). 또, 미국과 협조하여 일본군 학도병 출신(김준엽, 장준하 등)을 중심으로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으나(정진군, 1945.3), 예상보다 빠른 일제의 패망으로 실현하지 못하였다.

48. 다음 선언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남북 조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②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③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 ④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을 성사시켰다.
- ⑤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을 시작하였다.

정답: ④

*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 정상 선언(2007)

1970년대에 들어와 닉슨 독트린(1969, 미국의 불개입주의 천명) 발표 이후 냉전 체제의 완화, 남한의 경제 발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남북 교류를 제의하고(1970년 8.15. 선언, 남북한 선의의 경쟁), 남북 간에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적십자 대표의 예비 회담을 열었다(1971.9~1972.8). 또,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1972). 이 성명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이후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이 발표로 남북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 직통전화(핫라인) 가설과 남북 조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남북한 쌍방은 각각 10월 유신과 사회주의 헌법 제정으로 독재를 공고히 하였다.

노태우 정권(1988.2~1993.2) 때인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한의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이 추진되었다.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1991.8),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 체육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곧이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남북 기본합의서, 1991.12),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통일 노력이 전개되어 평화 통일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1998년에 김대중 정부(1998.2~2003.2)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민간 차원에서 현대 정주영 회장이 소떼 500마리를 이끌고 방북한 것을 기점으로 금강산관광(해로)이 이어졌다(1998). 그리고 마침내 평양에서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2000). 또, 금강산 관광과 경의선 연결(2000.9.18~2002.12.31. 남측 완료),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등이 실현되어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2003.2~2008.2) 때에는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을 이어받아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어 6·15공동선언의 적극 구현,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적극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위협과 이명박 정권 이후 상호주의 기조 아래 남북 관계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49. (가)~(라)의 경제 상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 (가) 칠레, 유럽 연합(EU), 미국 등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였다.
(나) 제1차 석유 파동으로 원유 가격이 폭등하여 경제 불황에 직면하였다.
(다) 외환 위기로 인해 국제 통화 기금(IMF)에 구제 금융 지원을 요청하였다.
(라)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으로 연 10%가 넘는 고도 성장을 하였다.

-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다) - (라) - (나)
③ (나) - (다) - (라) - (가)
④ (나) - (다) - (가) - (라)
⑤ (다) - (나) - (가) - (라)

정답: ④

* 1970년대 이후의 경제 상황

1970년대 들어서 2차례의 국제 유가 폭등(1973, 1978), 10·26 사태(1979) 이후의 정치적 변동, 중화학 공업의 중복 투자에 따른 후유증 등으로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과 국제 수지의 악화라는 위기에 처하였지만, 수출 증대는 지속되었고(1977년 수출 100억 불 달성), 건설업의 중동 진출로 오일 달러를 획득하여 극복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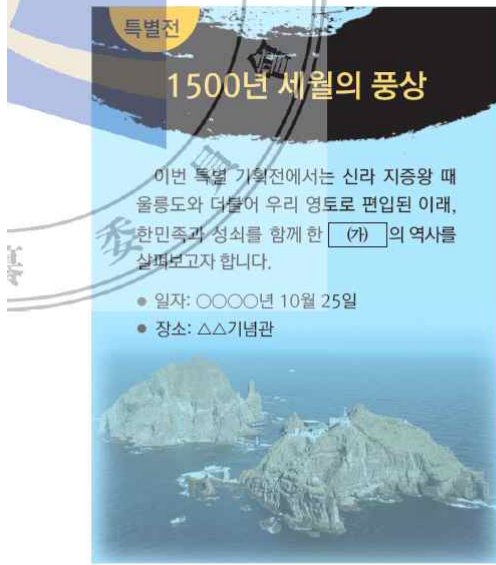
1970년대 말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우리 경제는 전두환 정부가 중복 투자와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금융 시장 일부를 개방하면서 다시 회복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3저(저금리, 저물가, 저환율) 호황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늘면서 반도체·자동차 등 첨단 기술 집약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 들어서 김영삼 정권 때에는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으며(1993), 성급하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를 내세우며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는(1996) 등 시장 개방 정책을 실시했으나, 임기 말에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 기금(IMF)에 의존하게 되었다(1997)

IMF 경제 위기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1998~2003)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위원회를 만들고 기업 구조 조정, 외국 자본의 유치, 부실기업의 정리 등에 힘써 2001년에는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노무현 정권 때에는 2004년 4월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미국과도 2007년 5월에 체결하였다(일부 분야 한정. 재협상 후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 때에 발효).

50. (가)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세종실록에서 지리지 부분을 검토한다.
- ②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문서를 조사한다.
- ③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과 전투한 장소를 찾아본다.
- ④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간 배경을 살펴본다.
- ⑤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불법으로 편입한 지역을 알아본다.

정답: ③

* 독도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독도는 울릉도에 딸린 섬으로서, 일찍부터 우리나라의 영토로 이어져 내려왔다.

삼국사기 기록의 신라 지증왕 13년(512)에 이사부를 통하여 우산국(울릉도)을 정벌한 사실과, 고려사 지리지(동계 울진현조), 세종실록지리지(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조 기록), (신증)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에 우산도(독도)를 울릉도 안쪽에 표기) 등의 문헌 등을 통해서 우리 영토임이 분명하였으나, 조선 초기에 유민을 막기 위해 울릉도민들을 본토에 옮겨 살게 하여(공도 정책) 한때 정부의 관리가 소홀하였다. 그러나 우리 어민들은 고기잡이를 하는 거점으로 줄곧 활용해 왔다.

특히, 조선 숙종 때에는 동래에 살던 안용복이 이 곳을 왕래하는 일본 어부들을 쫓아내고, 일본에 건너가서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확인시킨 일도 있었다(1696).

그 후에도 일본 어민의 침범이 계속되자, 이에 정부는 일본 측에 항의하고 육지 주민을 울릉도에 이주시키고 관리를 파견하였다(1884). 특히 1899년 울릉도의 산림 채벌권을 가진 러시아가 대한제국 정부에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울릉도의 산림을 벌채해 가고 있으니 이를 금지해 달라고 외교 문서로 강력하게 항의하자, 1900년 내무관리 우용정을 울릉도 시찰위원으로 임명하여 일본 측과 제3국 외국인을 포함한 조사단을 파견하여 일본인의 불법 자행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이후 대한제국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행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제의 개정 및 격상을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대한제국 정부 칙령(41호)으로 두 섬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가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石島)도 관할하게 하면서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다(1900.10.25).

그러나 일본은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불법적으로(대한제국에 통보치 않음) 자국의 영토(시마네 현)에 편입시켰으나(1905), 해방 후 되찾았고 1952년부터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국 영토임을 부르짖으며 끈질기게 분쟁지역으로 몰아가고 있다.

③ 1866년 9월 강화도에 침입해 서울로 진격하던 프랑스군을 한성군이 지휘하는 군대는 문수산성(김포)에서 방어하였고, 양헌수가 거느린 군대는 정족산성(강화도)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